

제367회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11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5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5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관계법령 개정 에 관한 청원
- 56. 업무보고
-교육부 및 산하기관
- 5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6
- 의사일정 상정의 건 6
-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유동수·이동섭·민
홍철·김성수·박정·박주민·노웅래·남인순·조정식 의원 발의) 6
-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박광운·송갑석·권철승
·김영주·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 6
-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홍영표·송갑석·노웅래·김현
권·김철민·김경협·원혜영·김병기·김상희·조승래·소병훈·최재성·김병관·이춘석·이용
득·김해영·김한정·이원욱·이훈 의원 발의) 6
-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황주홍·김삼화·이태규·김중로·
김수민·백재현·홍철호·안상수·오신환 의원 발의) 6
-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노웅래·손혜원·고용진·김
병욱·오영훈·송갑석·이동섭·박홍근·김태년·인재근·이상헌 의원 발의) 6
- 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상헌·송옥주·김석기·이언주·

- 박인숙·안민석·이동섭·김영주·조훈현·최경환(평) 의원 발의) 6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원유철·장병완·송옥주·이찬열·이용주·박주현·김중로·김중희·정동영 의원 발의) 7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김해영·송갑석·박광온·이수혁·박홍근·김성수·조승래·박정·송옥주 의원 발의) 7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김해영·송갑석·박광온·이수혁·박홍근·김성수·조승래·박정·송옥주 의원 발의) 7
1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7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김삼화·신용현·박주선·김동철·김수민·주승용·최도자·임재훈·권은희·오신환 의원 발의) 7
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정갑윤·조훈현·원유철·곽대훈·김신동·이채익·홍문표·김성원·서청원·이명수 의원 발의) 7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중희·전재수·오제세·전혜숙·박재호·임종성·안규백·김철민 의원 발의) 7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김종대·김상희·김종훈·김광수·이철희·김현권·송갑석 의원 발의) 7
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김종대·김상희·김종훈·김광수·이철희·김현권·송갑석 의원 발의) 7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송갑석·이찬열·인재근·금태섭·홍의락·송옥주·원혜영·심재권·이수혁 의원 발의) 7
1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홍의락·권미혁·유동수·조정식·김병기·박찬대·이상헌·김민기·박홍근 의원 발의) 7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김병관·박찬대·설훈·신창현·심재권·유동수·위성곤·이용득·전재수 의원 발의) 7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상훈·박맹우·이채익·박성중·김승희·곽대훈·박완수·김도읍·윤종필 의원 발의) 7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원혜영·박정·추미애·김철민·김성환·표창원·금태섭·전혜숙·오제세 의원 발의) 7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박정·송갑석·김정우·박찬대·표창원·이찬열·고용진·김영호·금태섭·신창현 의원 발의) 7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맹성규·박정·신창현·김철민·박찬대·윤소하·금태섭·김해영·이종걸·이학재·민병두·유성엽 의원 발의) 7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맹성규·박정·신창현·김철민·박찬대·윤소하·금태섭·김해영·이종걸·이학재·민병두·유성엽 의원 발의) 7
25.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이찬열·이동섭·김중희·김삼화·최도자·하태경·신용현·강길부·조경태 의원 발의) 7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이언주·이동섭·권은희·장정숙·전혜숙·김삼화·김수민·김중로·주승용·이찬열·정동영 의원 발의) 7
2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7
2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7
2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7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김영우 · 김상훈 · 신상진 · 이종명 · 주광덕 · 김정재 · 추경호 · 엄용수 · 김광림 · 황영철 의원 발의)	7
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8
3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8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8
3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8
3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8
3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8
3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8
3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8
3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8
4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8
4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8
4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8
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 · 이철희 · 전재수 · 백재현 · 김경진 · 박용진 · 제윤경 · 임재훈 · 유승희 · 황주홍 의원 발의)	8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김종석 · 박맹우 · 김진태 · 김영우 · 권성동 · 이종명 · 정유섭 · 추경호 · 김도읍 의원 발의)	8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 · 윤후덕 · 윤관석 · 김경협 · 신창현 · 박주민 · 박홍근 · 서삼석 · 권미혁 · 전해철 · 김철민 · 윤준호 · 우원식 · 제윤경 · 심기준 · 노웅래 의원 발의)	8
4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 · 이후삼 · 박광온 · 신경민 · 조정식 · 황희 · 이상헌 · 서영교 · 박찬대 · 최인호 · 박홍근 · 김해영 의원 발의)	8
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4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이찬열 · 박찬대 · 이동섭 · 금태섭 · 신창현 · 서삼석 · 김철민 · 박정 · 박인숙 의원 발의)	8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 · 추경호 · 곽대훈 · 주광덕 · 김석기 · 박대출 · 민정욱 · 김도읍 · 김성원 · 박덕흠 의원 발의)	8
50.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 · 송언석 · 유기준 · 추경호 · 장석춘 · 곽대훈 · 주광덕 · 김석기 · 김성원 · 박덕흠 의원 발의)	8
5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박덕흠·김현아·장석춘·김정재·이은재·홍철호 의원 발의) 8

5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강효상·김성찬·김재원·김종석·김학용·김현아·박맹우·신상진·윤상직·윤재옥·추경호 의원 발의) 8

5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강효상·김성찬·김재원·김종석·김학용·김현아·박맹우·신상진·윤상직·윤재옥·추경호 의원 발의) 8

5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김선동·김수민·김중로·김철민·박인숙·신용현·원유철·유승민·유의동·이태규·홍문표 의원 발의) 9

55.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 9

56. 업무보고 11
 -교육부 및 산하기관
 ○ 의사일정 변경의 건 24

5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김선동·김수민·김중로·김철민·박인숙·신용현·원유철·유승민·유의동·이태규·홍문표 의원 발의) 24

5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정우·신창현·김종민·김관영·서형수·우원식·윤관석·김수민·김영호·이용득·원혜영·한정애·소병훈·김영춘·김성수·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24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조승래·조정식·백혜련·이규희·김정우·임종성·송갑석·서영교·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24

6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찬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잠시 정회하여 법안소위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논의 처리한 후 교육부 및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방송에서는 3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유한국당의 이학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이학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앞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학재 위원님께서도 같이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우리 위원회에 온 직원이 여러 분 계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열 전문위원입니다.

1월 초에 오셨는데 이제 인사드립니다.

백장운·남정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조재분·김은희 행정관입니다.

(직원 인사)

사무처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저희 위원회로 다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만에 뵙습니다. 국회가 두 달 넘게 공전되면서 국민들 뵙기도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회의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놔는데 두 달 동안 회의실을 이용 못 하는 바람에 회의실한테도 미안한 감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가장 많은 여론에 등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치원 3법, 학교 미세먼지 대

책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이 점을 헤아려 주셔서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께 작은 선물이나마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4시11분)

○위원장 이찬열 의사일정 제1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방과후학교 과정 관련 조항의 지난 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6일 공교육 정상화법을 의결하여 법사위로 송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법사위 처리가 늦어져 일몰조항이 삭제되고 일몰조항 신설에 대한 이견으로 법사위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이미 처리된 법안 내용에 일몰 삭제된 조항을 다시 넣고 3월 입법 공백기간에 방과후학교의 효력을 인정하는 소급조항을 넣은 위원회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법사위에서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등을 상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소위에 유사한 법안이 이미 회부되어 있는 경우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직접 법안소위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직접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14분)

○위원장 이찬열 또한 국회법 제59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정할 법안 중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 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참고로 이것은 각 정당에서 합의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유동수·이동섭·민홍철·김성수·박정·박주민·노웅래·남인순·조정식 의원 발의)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권칠승·김영주·전현희·김종민·이춘석·윤관석·김현권·송옥주 의원 발의)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홍영표·송갑석·노웅래·김현권·김철민·김경협·원혜영·김병기·김상희·조승래·소병훈·최재성·김병관·이춘석·이용득·김해영·김한정·이원욱·이훈 의원 발의)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황주홍·김삼화·이태규·김중로·김수민·백재현·홍철호·안상수·오신환 의원 발의)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노웅래·손혜원·고용진·김병욱·오영훈·송갑석·이동섭·박홍근·김태년·인재근·이상헌 의원 발의)

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상헌·송옥주·김석기·이언주·박인숙·안민석·이동섭·김영주·조훈현·최경환(평) 의원 발의)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원유철·장병완·송옥주·이찬열·이용주·박주현·김중로·김종희·정동영 의원 발의)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김해영·송갑석·박광운·이수혁·박홍근·김성수·조승래·박정·송옥주 의원 발의)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김해영·송갑석·박광운·이수혁·박홍근·김성수·조승래·박정·송옥주 의원 발의)
1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박광운·송갑석·김영주·권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김삼화·신용현·박주선·김동철·김수민·주승용·최도자·임재훈·권은희·오신환 의원 발의)
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정갑윤·조훈현·원유철·곽대훈·김선동·이채익·홍문표·김성원·서청원·이명수 의원 발의)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희·전재수·오제세·전혜숙·박재호·임종성·안규백·김철민 의원 발의)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김종대·김상희·김종훈·김광수·이철희·김현권·송갑석 의원 발의)
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김종대·김상희·김종훈·김광수·이철희·김현권·송갑석 의원 발의)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송갑석·이찬열·인재근·금태섭·홍의락·송옥주·원혜영·심재권·이수혁 의원 발의)
1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홍의락·권미혁·유동수·조정식·김병기·박찬대·이상현·김민기·박홍근 의원 발의)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김병관·박찬대·설훈·신창현·심재권·유동수·위성곤·이용득·전재수 의원 발의)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상훈·박맹우·이채익·박성중·김승희·곽대훈·박완수·김도읍·윤종필 의원 발의)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원혜영·박정·추미애·김철민·김성환·표창원·금태섭·전혜숙·오제세 의원 발의)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박정·송갑석·김정우·박찬대·표창원·이찬열·고용진·김영호·금태섭·신창현 의원 발의)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맹성규·박정·신창현·김철민·박찬대·윤소하·금태섭·김해영·이종걸·이학재·민병두·유성엽 의원 발의)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맹성규·박정·신창현·김철민·박찬대·윤소하·금태섭·김해영·이종걸·이학재·민병두·유성엽 의원 발의)
25.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이찬열·이동섭·김종희·김삼화·최도자·하태경·신용현·강길부·조경태 의원 발의)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이언주·이동섭·권은희·장정숙·전혜숙·김삼화·김수민·김중로·주승용·이찬열·정동영 의원 발의)
2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2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2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김영우·김상훈·신상진·이종명·주광덕·김정재·추경호·엄용수·김광림·황영철 의원 발의)
- 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3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3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3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3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3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3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3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4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4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4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이철희·전재수·백재현·김경진·박용진·제윤경·임재훈·유승희·황주홍 의원 발의)
-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종석·박맹우·김진태·김영우·권성동·이종명·정유섭·추경호·김도읍 의원 발의)
-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윤후덕·윤관석·김경협·신창현·박주민·박홍근·서삼석·권미혁·전해철·김철민·윤준호·우원식·제윤경·심기준·노웅래 의원 발의)
- 4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후삼·박광온·신경민·조정식·황희·이상현·서영교·박찬대·최인호·박홍근·김해영 의원 발의)
- 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이찬열·박찬대·이동섭·금태섭·신창현·서삼석·김철민·박정·박인숙 의원 발의)
-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추경호·곽대훈·주광덕·김석기·박대출·민경욱·김도읍·김성원·박덕흠 의원 발의)
-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송언석·유기준·추경호·장석춘·곽대훈·주광덕·김석기·김성원·박덕흠 의원 발의)
- 5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진복·김재원·한선교·박덕흠·김현아·장석춘·김정재·이은재·홍철호 의원 발의)
- 5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강효상·김성찬·김재원·김종석·

김학용·김현아·박맹우·신상진·윤상직·윤재옥·추경호 의원 발의)

5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강효상·김성찬·김재원·김종석·김학용·김현아·박맹우·신상진·윤상직·윤재옥·추경호 의원 발의)

5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김선동·김수민·김중로·김철민·박인숙·신용현·원유철·유승민·유의동·이태규·홍문표 의원 발의)

55.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이찬열** 의사일정 제2항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윤소하 의원이 소개한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관계법령 개정

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54건의 법안 및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이학재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의원**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이학재 의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충북 등 전국 7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15년이 경과했지만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전과 입주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는 3개뿐이며 일반학교의 교육과정도 타 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우수한 기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적극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활성화하려면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교육여건의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초·중·고교 입학 배정을 위한 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을 단일 학군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특화된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법안을 검토하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유은혜 장관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모든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의 노트북에 있는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안건별 검토보고서는 노트북 안에 정리되어 있고 위원님들 자리에는 요약 검토보고서가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예시에 수영장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3항은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초등학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개정안은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어 수영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이나 개정 실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제7조제1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제3항은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영장도 기반시설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수영장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이미 국가 및 지자체에게 수영장 확충 의무가 규정된 상황에서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의 경우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나 현행 제15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지원이 가능한 상황으로 유독 수영장만 별도로 중복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2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열**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교육부 소관 법률안 34건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46항 유은혜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사용되고 있는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회와 행정부의 중재 속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제안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입법례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정부가 제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 시설은 설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발생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 중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보건교과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에서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보건교과만 별도로 필수적 이수교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 중단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자격의 등록 유

효기간 및 등록 갱신 절차를 마련하고 매년 민간 자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무부처의 인력·예산 상황 등을 감안, 이미 등록된 민간자격의 등록 갱신 업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부칙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 27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유리천장 관련 법률안입니다.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관리직 목표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임명 목표제를 감안할 때 개정안들과 같이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리천장위원회를 둘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339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개별 근거 법률에 관련 조문을 일일이 신설하기보다는 모범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질의는 업무보고 후 질의 시간에 일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 중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잠시 후 열릴 법안소위 논의를 위해서 지금 바로 법안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법안소위 심사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시 50분 개의 목표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마련되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6. 업무보고

-교육부 및 산하기관

○위원장 이찬열 의사일정 제56항 교육부 및 그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백범 차관입니다.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한상신 대변인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좀 미리 미리 나오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구연희 사회정책협력관입니다.

김정현 감사관입니다.

김천홍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은희 국제협력관입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입니다.

김태훈 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정인순 학교혁신정책관입니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입니다.
전우홍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임창빈 평생미래교육국장입니다.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김현국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부단장입니다.
이윤홍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소속기관장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우철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입니다.
김은숙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입니다.
김영철 중앙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입니다.
박성민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산하 공공기관장 및 유관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중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입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신승운 한국고전번역원 원장입니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입니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입니다.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입니다.
안성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입니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입니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입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사를 다 드렸고요.
이제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9년 교육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정책 추진여건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등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정과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교육혁신이 시급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교육기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두 가지 핵심적인 업무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첫째, 교육부부터 먼저 변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지원하고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열어가겠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부터 변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취업제한을 강화하여 교육부 직원이 사학과 유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책의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부처 간에 실질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교육현장의 자정노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24쪽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교육부가 준비하고자 하는 미래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용을 바탕으로 한 미래교육입니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고 통학버스, 돌봄과 같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서비스도 개선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선행학습을 받지 않아도 한글, 수학, 영어 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기초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학교

안팎에 촘촘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교육급여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춰 가겠습니다.

둘째, 대학만이 우리 아이들의 유일한 성공경로가 되지 않도록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는 미래 산업과 연계하여 개편됩니다.

직업계고 3학년 2학기에 전환 학기를 도입하여 학생의 현장 실무능력을 키우고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은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우수한 고졸 일자리를 늘리고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겠습니다.

고졸 취업자가 재직 중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우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셋째, 혁신을 바탕으로 한 미래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간 혁신으로 교육혁신을 이끌겠습니다.

학교에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 주는 다양한 공간을 배치하고 어울림과 쉼, 교류가 가능한 휴게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변화의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STEAM,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30쪽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운동하고 학생선수는 공부를 병행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도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일자리 구조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의 역할과 평생학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이 주체가 되어 고등교육 혁신 방향을 수립할 것입니다.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019년 새롭게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혁신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학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BK21 후속사업을 개편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립대학은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입니다.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연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와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2020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올해 안에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실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학교 등 실내 체육시설 설치가 곤란한 학교에는 실내 신체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감군 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유치원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유아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유치원 폐원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였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에 단계적으로 에듀파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아 3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올해 8월 시행되는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강사의 실질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강사 고용 현황을 점점 관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사 처우를 개선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 방향을 수립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은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교육부는 고등·평생·인적자원·직업교육 분야로 기능과 역할이 집중되고 사회정책 총괄·조정 역할이 강화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7쪽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특히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올 2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교육부는 2019년이 새로운 미래교육을 여는 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들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육,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기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줌……

○위원장 이찬열 예,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민적으로 교육부에서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교육부는 3월 8일에 지난 2018년도 사교육비 현황과 각종 실태에 대한 조사를 완비하고 그에 관련한 기자 브리핑까지 마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1일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은 충분히 보고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의 질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3월 15일까지로 언론사에 엠바고를 걸어서 교육부가 이 자료를 그때까지 공개를 늦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감시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 파악에 있어서 현저한 저해를 미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경위 파악 및 지금 이 자리에 그 관련 세부 내용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교육부장관께서는 전희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201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는 3월 12일, 내일이 공표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청과 같은 시간에 공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보고 자료에 포함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비공개로 해 달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공개를 해 주셔야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런데 통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내일 발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전희경 위원님, 만약에 또 우리가 전체회의가 필요하면 간사님들한테 요청을 드려서 간사님들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26일 날 전체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간사님들이 필요하면 전체회의를 또 열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봐도 오늘 같은 날, 내일까지 엠바고를 한다고 그래도 교육위원들인데 오늘 여기서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음부터는 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것은 저희만이

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결과 발표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라서 누락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찬열** 우리가 1월 달부터 회의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체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15일 날 자료 제출하겠다는 건가요, 15일?

○**위원장 이찬열** 12일 아니에요, 내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내일 발표됩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니까 내일 발표한다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내일……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통계청하고 같이 하는 날이 내일이라는 말씀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그러면 엠바고는 12일로 거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13일입니다. 13일 날 보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13일날 보도로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2017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굉장히 그 내용이, 사실 이것만 봐도……

○**위원장 이찬열** 벌써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내일 발표면 이미 작성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이 정도 분량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 차이에 지금 이 내용을 언론에는 일단 브리핑까지 될 정도인데 교육위에 이게 안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열** 저도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일 거라면 오늘 정도 우리가 비공개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알려 주시는 것도 당연히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내일 하루 발표되고 나면 각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학재 위원님, 뭐……

○**이학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간단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치원 폐원 요건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그 강화한 내용과 그렇게 강화한 이유를 바로 보내 주시면 제가 질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자료 제출 요청이지요?

○**이학재 위원** 예.

○**위원장 이찬열** 그거 받아서 좀 정리해서 이학재 위원님께 드리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회가 그동안 휴회 상태에 계속 있다가 이제 정상화돼 갖고 있으니까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도 그동안에 소관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계속 받았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은 교육위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소관기관은 아니고 업무상 유관기관입니다, 사실은.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금 업무보고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제일 편한 것은 알아볼 사항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 좀 해 달라고 해야 될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방위 산하로 되어 있고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정무위 소속인데, 교육위원회에 오늘 다 나오셨지요? 자료도 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운영상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대해서만 인사말씀을 겸해서 업무보고를 준비된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편의상 업무보고라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안녕하세요
 까?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안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님, 조승래
 감사위원님, 김한표 감사위원님, 임재훈 감사위원
 님, 그리고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업무현황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18년도 주요 성과, 2019년
 도 주요 업무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관의 개요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목적은 과학기술문화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 구축이고 설립의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 개발, 그리고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 사업, 과학
 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창
 의적 인재교육 전문가 육성, 연수 지원 등에 있
 습니다.

다음으로 4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4단, 2연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
 력 정원은 상근 임원 1명을 포함하여 145명입니
 다.

다음으로 5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약 857억 원이며 주요 사업
 분야별 예산과 소관 부처별 예산 현황은 보고 자
 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비전과 경영 목표입니다.

재단의 비전은 과학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
 의 육성으로 국민적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창의
 성 증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
 하는 것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목표는 첫째, 과학문화
 및 창의인재 육성사업의 고도화, 둘째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미래 성장기반 확보, 셋째 사회적
 가치 실현기반 강화,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구축입니다.

전략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2018년도 주요 성과 부분입니다.

먼저 과학기술과 소통하고 즐기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총 21만여 명이 관
 람한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최, 전국 지역 100
 만여 명이 참여하는 13개 지역과학축전 지원 등

참여 확대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
 성하였고, 둘째 과학커뮤니케이터·과학해설사·
 과학강사 등 매년 수천 명의 민간 과학액티베이
 터들을 양성하고 ICT 기반의 과학문화 콘텐츠
 110종을 개발 및 확산하여 과학기술의 흥미와 관
 심을 높이고, 셋째 35개의 생활과학교실 지역센
 터, 17개 청소년과학 탐구센터, 약 100개의 과학
 문화 단체들이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과학프로
 램 제공 비율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생적 과학문
 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을 선도하
 기 위하여 첫째,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 개발
 및 과학·수학·정보 및 융합교육 종합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수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개발하였고 지난해는 중등 과학·수학
 수업지도 자료도 18종을 개발하고 수천 명의 교
 원연수 등을 통하여 과학·수학 교육의 중장기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범교과 혁신을 위한 창의교육 및 스팀
 (STEAM)교육을 선도할 교원 약 1만여 명 육성,
 약 3800여 명이 참여한 학교 밖 스팀 체험프로
 램 운영, 학생 연구과제 130건 지원 등으로 창의
 인재 및 융합인재 양성교육을 통한 미래교육을
 선도하였고.

마지막 셋째, 우수한 사회적 자원을 교육에 참
 여시키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36개 단체를
 신규 참여시켰으며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활동
 으로 총 2만 5000여 명의 수혜자 창출, 또 자유
 학기 우수 수업을 뽑는 수업콘서트를 개최하여
 34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등 교육기부 및 자
 유학기제 활성화를 통해 미래교육의 기반을 조성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능정보사회를 이끄는 미래 혁신인재 육성을 위
 하여 첫째, 전국 54개의 과학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 과학영재의 창의적 연구과제 540건
 지원 등 혁신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였으
 며, 둘째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수를 1597개
 교로 확대하였고 4만 8000여 명이 참가한 소프트
 웨어 교육 페스티벌 개최 등 초·중등 소프트웨
 어 교육의 저변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부
 분입니다.

먼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자생적

과학기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첫째, 도심형 과학문화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이슈 연계 과학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국민 체험·참여형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과학소통 프로그램의 다양화, 과학기술소통 플랫폼의 활성화로 국민과 소통하는 과학기술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우수과학문화상품 보급, 기업의 과학문화 활동 촉진 등을 통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문화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는 더욱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평등한 출발선 교육과 과·수·정 교과외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의 실천력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초중등 과학·수학 교육의 중장기 혁신, 과학·수학 교육에 대한 긍정문화 조성 등을 통하여 참여하며 즐기는 미래지향적인 과학·수학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둘째, 창의교육·STEAM교육 관련 선도적 연구수행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추진, 창의교육·STEAM교육 교원역량 강화를 통하여 수업혁신을 이끄는 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셋째, 범사회적 교육기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기부·자유학기제 콘텐츠 확충을 수행하고 교육의 혁신을 더하는 교육기부와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 과학기술 혁신인재 육성을 위하여 첫째, 과학영재의 연구역량 강화, 과학고·영재학교 간 연계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맞춤형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능기부 등을 통한 과학영재의 사회참여 지원,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으로 과학영재 발굴의 외연 확장 등 사람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지원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선 및 소프트웨어 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이하 교육위 위원님께 한국교육개발원을 소개하게 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유인물을 위원님께 미리 배포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 드리고요. 구두로 간단하게 한국교육개발원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현재 2019년부터 주요업무연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도에 설립되어서 정부출연연구소로 계속 그 역할을 수행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개 본부와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28개 실·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적 구성을 보면 505명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219명이고 나머지 299명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은 작년에 62%의 비정규직 비율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56.6%로 다소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진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내부적으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교육개발원을 운영하는 데 올해 867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177억입니다. 그래서 정부출연으로 지원하는 규모는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연구사업 수주를 통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향하는 목표에 근거해서 크게 올해는 네 가지 연구영역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육의 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통해서 학교현장과 연계시키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 대비해서 교육 체제나 교육 내용, 콘텐츠가 어떻게 개혁돼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글로벌 교육을 위해서,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이 OECD CERI의 거버닝 바디(governing body)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OECD라든지 유네스코와의 SDG 관련 연구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가교육 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각종 실질적인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주요 연구사업을 올해 책정한 것을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래지향적 교육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교육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학습 분석 기반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게 학습공간의 재구조화입니다. 지금 일자형, 디근자 형의 학습공간이 과연 4차 산업혁명에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통해서 미래에 대비해서 학생들의 학습 동선에 필요한 학습공간 재구조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큰 연구영역은 교육개혁 정책하고 교육현장 혁신연구 수행입니다. 교원정책에 관련해서 교원정책 혁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정책 그리고 지방교육자치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평생교육과 관련된 연구, 세 번째 영역에서는 고등교육 정부 재정지원 확보와 배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대학의 공유 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평생교육의 확대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연구영역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OECD 2030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OECD와 협력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OECD 사회정서역량 중단조사는 OECD와 계속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교원과 관련된 OECD TALIS 본조사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지금 글로벌 교육협력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SDG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 연구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KEDI IV를 통해서, 교육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계속 연구조사를 해서 교육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KEDI가 학생역량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신입생 조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사연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교육개발원의 현황과 2019년도 주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성기선 안녕하세요?

이찬열 위원장님 이하 교육위원 여러분들 앞에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성기선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8년도 교육개발원으로부터 독립하고 교육과정과 평가에 관련된 주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하고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 시행하며 학교교육 질의 향상 및 국가교육 발전을 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과 평가라고 하는 큰 두 축의 연구와 사업의 비중이 약 절반 정도 됩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 각론에 대한 개발, 현장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중등 임용고사 출제 및 채점을 하고 있고요. 검정고시를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준성취도평가, 국제수준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의 경우에도 6월 모의수능, 9월 모의수능, 본수능 해서 세 번의 다양한 평가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7개 본부가 구성돼 있으며 약 360여 명의 연구원과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약 180여 명이 각 교과별 또 교육학 포함한 전문 박사급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9학년도의 주요 연구에 대한 방향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과정평가원이 작년에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먼저 설치 운영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방향 관련된 교원들에 대한 연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세 기관이 각각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앙추진단을 교육부에서 같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단위학교의 자율화를 선도하는 한 축으로 고교학점제 기반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서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부 중에서 교수학습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기초학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 부분에서도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평가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취도 평가의 경우에도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평가체제로의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 난이도의 문제라든지 출제의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이런 고교학점제와 연동되는 수능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기초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에 작년에 PISA 연구를 실행했고 올해 말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평가 결과를 어떻게 피드백해서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준성취도평가의 경우에도 전집에서 표집으로 전환된 체제 변화와 앞으로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의 성과 확산 및 교육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와의 연계 소통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강화로 단위학교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교육과정이나 평가 부분에서도 단위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평가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자치 강화에 따라서 교육과정 총론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올해 연구를 통해서 총론 또는 다음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교육과정이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 터 또 적용되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현장에 어떻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이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한편으로 보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중하게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나영선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다음에 조승래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또 임재훈 위원님, 간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다른 교육위원회 위원님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에 고용노동부, 전 노동부 그다음에 교육부와 함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스쿨 투 워크, 말하자면 교육 끝나고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일자리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 설립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업교육 훈련 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 이런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고 소득창

출을 지원하여 결국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모두 6개의 본부로 되어 있는데 그중의 4개 본부가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12개 센터가 있는데 12개 센터 중 8개 센터가 교육부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2개의 센터가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192명의 정규직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한 90여 명이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RA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금년도 예산은 684억입니다. 이 중 221억 정도가 출연금이고 나머지 자체수입이 463억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저희 사업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출산 고령화 및 제4차 산업혁명 등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인적자원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평생직업 진로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연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현 정부의 국정목표이고 국정과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하자면 일자리,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 기관설립 및 고유기능에 기반한 2019년 이후 여러 가지 경영목표에 따른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산업사회의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학제 간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의 주요 연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직업교육과 사회이동입니다.

사회적 양극화 및 수저론 등 사회계층의 고착화로 인해서 사회 이동성이 감소하고 역동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20년간 사회이동의 패턴을 분석하고 직업교육훈련이 과연 사회이동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가, 그야말로 사회계층적인 이동을 갖고 왔는가, 이 부분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직업교육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해서 직업교육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모니터링 및 정책성과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작년도에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이 일단

수립된 데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의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자 여러 가지 관련된 연구를 하고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플랫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거버넌스 실태를 파악하고 또 참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모형 및 정책의사소통 거버넌스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연구는 청년의 자기고용 직업연구입니다.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또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가 굉장히 우려되는 가운데 1인 창업이나 창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청년들의 온라인 기반 자기고용직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관련된 일자리 활성화 내실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일생활 균형사회와 직업능력개발 혁신입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한 인력양성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기존의 정책 제도에 대한 진작과 혁신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능력개발 체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노동환경 변화 중에서 범부처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측면의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노동형태의 등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평생직업교육훈련 특히 고졸취업이라든가 현장실습에 관련된 정책들을 평가하고 관련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계고 학점제라든가 지역사회 밀착형 직업계고 또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에 따른 전환학기제 모형,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지정이 된 이래로 2018년 작년 말에 다시 재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학교교육 과정 내에서 진로교육과정 운영 또 사회적 배려 대상을 위한 진로개발 체제를 위한 여러 가지 진로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와 관련된 사회적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위한 여러 가지 센터를 설치해서 정

책분석 및 평가기능도 확립하고 교육부의 사회부총리에 대한 정책지원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직능원에서도 글로벌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0년에 유네스코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아프리카 5개국의 노동시장 분석과 그다음에 교과서 개발을 지원했고요, 지금은 그 후속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것 외에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그런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직능원은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HCCP라든가 KEEP이라는 교육고용 패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직업교육정책 또 교육정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 직업교육정책이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부의 직업교육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있게 보고해 주신 장관님, 그리고 직접 발표는 못 하셨지만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모든 기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성진 이사장님,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님, 성기선 원장님, 나영선 원장님, 입장이 어려운 입장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함께 오늘 상정된 법안 등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서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질의 시간을 간사 간 협의에 의한 결과대로 5분씩 드리겠으며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광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도 위원 광상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자식을 데리고 해외 이주한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해외 이주를 하게 되

면 해외이주법에 따라서 외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지만 확인해 주세요.

또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국민으로도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그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아직 충분하게 전체 상황을 확인하지 못해서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상도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광상도 위원 이게 초중고생이 해외유학을 가거나 하면 학교장에게 의무교육 면제 신청하는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교육부장관 모르시면 차관,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이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가운데 부모의 해외파견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첨부서류까지는 제가 정확하개는 모르겠습니다.

○광상도 위원 자료에 보면 이게 같이 내도록 되어 있고 의무교육 면제 신청하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서류는 학교에서 가지고 있고 부모가 정말 해외 이주를 한다 하는 근거 서류를 갖고 이것을 제출했을 때 그때 해외 이주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면제시켜 주고 외국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해외 이주를 하고 나중에 장기 결석이 되어서 추적을 해 보면 이민이라든지 또는 장기 체류라든지 이런 사유로 나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그러면 해외 이주하면서 신고를 안 하면 해외이주법에 저촉되고 재외국민으로 등

록 안 하면 이 역시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외 이주해서 동남아의 어느 학교에 지금 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해외 이주한 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국제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또……

○**곽상도 위원** 이게 얘기가 된 지가 벌써 한 달 이상 됐는데 관련 내용을 지금 파악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모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교육부에 제가 묻는 것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의무교육 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해외 관련 서류, 어디에 취업을 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 그것도 확인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얘기 제기된 지가 언제인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전 과정에 대한 파악들을 하고 또 학교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은 늦지 않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부모가 해외에 취업한 게 사실이 아니면 이게 학교에 애를 취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회사에, 어디로 가게 됐는지 이 내용을 밝혀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밝히지를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밝혀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왜 이것을 못 밝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곽상도 위원** 아니 교육부장관, 지금 한 달도 더 됐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는 이 부분이 그 아이들의 동의나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곽상도 위원** 보세요, 지금 제가 묻는 말씀은 학교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곽상도 위원**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경 청와대 특감반이 교육부 방문해서 수원대 관련한 사학비리 제보자를 조사한 적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작년 말씀이십니까?

○**곽상도 위원** 예, 작년 4월 10일입니다. 이 모서기관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제가 추후에 확인한 것으로는 그렇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조사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정보 유출 혐의자에 대한 비위 자료를 교육부에서 수령해 왔다는데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부에서 낸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관실에서 조사해서 아마 5월 4일경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곽상도 위원**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된 사실은 본래 조사한 수원대가 아닌 다른 대학과 관련된 정보 유출 혐의로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가 된 것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

○**곽상도 위원**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위원님께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사실입니다.

○**곽상도 위원**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수원대가 아닌 다른 대학과 관련된 정보 유출 혐의로 대전

지검에서 수사가 됐고 이 내용이 지난 2019년 3월 5일 무혐의 처분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곽상도 위원 BH에서 이 모 서기관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털었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됩니까? 본래 조사하려고 한 것은 수원대 관련 비리 제보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수원대가 아닌 다른 대학과 관련된 정보 유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혐의를 조사해서 그것을 교육부에 넘기고 교육부에서 그것을 검찰에 넘겨서 수사 의뢰시켜 가지고 무혐의 받았습시다.

○위원장 이찬열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지요.

○곽상도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청와대가 포렌식으로 권한 남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사한 게 처음 무혐의가 난 사례입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교육부 직원들의 인권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는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 자체조사를 진행해서 징계처분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 직원의 이런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예.

○이학재 위원 지금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가지고 말씀이 순서에 좀 맞지 않는 듯하기도 한데, 제가 오늘 처음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임되어서 왔는데 오늘 오후에 회의가 시작되어서 어느 정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제가 국토교통위에 있을 때 인원이 30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5분, 3분 발언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7분 정도 발언을 했고, 또 오늘 올해 들어서 첫 회의인데 이것을 5분, 3분 하는 것은 너무나 그동안의 밀린 숙제를 하는 학생의 태도도 아니기도 하고……

○위원장 이찬열 예, 알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래서 최하 7분으로 하고……

○위원장 이찬열 그것은 이미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좀, 진행을 벌써 또 곽상도 위원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행정실에서는 타이머 정확히 관리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의견으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간사님들 간 협의하실 때 이럴 때 간사님들, 의견도 좀 받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회의 운영상 학교……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자료 요청입니까?

○조승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마지막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조승래 위원 사실은 이 법안 처리를 먼저 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했고 또 그 질의 내용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하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법안 의결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어떤 의혹 제기도 가능한 것입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아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그것으로 오늘의 의사진행발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운영상 학교보건법 의결을 먼저 하고 김해영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승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 상정해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조승래 위원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장 이찬열 예, 해 주세요.

○조승래 위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찬열 먼저 하세요.

○소위원장 조승래 교육 법안심사소위원장 조승래입니다.

우리 소위는 3월 11일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의원, 박경미 의원,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과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유치원과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와 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기질 등의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법안이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통과가 시급한 만큼 우리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01분)

○위원장 이찬열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이 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약간 순서가 바뀌었지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승래 위원님의 동의에 다 찬성하시는 거지요? 제안 설명하신 내용을 동의서로도 같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위원님들이 찬성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동의자 외 다수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옥주 의원, 박경미 의원,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김선동·김수민·김중로·김철민·박인숙·신용현·원유철·유승민·유의동·이태규·홍문표 의원 발의)

5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정우·신창현·김종민·김관영·서형수·우원식·윤관석·김수민·김영호·이용득·원혜영·한정애·소병훈·김영춘·김성수·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조승래·조정식·백혜련·이규희·김정우·임종성·송갑석·서영교·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6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이찬열 의사일정 제57항부터 60항까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순서는 바뀌었지만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3당 정책위의장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합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조금 전까지 법안소위를 열어 소위원님들 간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수고해 주신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객상도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임재훈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등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정병국 의원, 송옥주 의원,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0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서 교육부장관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앞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의 의결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 참석자 명단을 봤는데요. 교육부장관님 이하 간부분들 총 스물한 분의 명단이 나왔는데 제가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지역 대학 출신분이 전체 스물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역대를 육성하는 것이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다고 국가적으로 매우 필요한 과제입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지금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는지 이미 드러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 함께 출산율이 0.98이라고 나왔는데 저출산도 굉장히 수도권 집중과 관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서열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대를 육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역의 중소

기업을 혁신시키고 하는 것도 지역의 대학이 사실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역 거점대나 지역의 대학들을 지원하고 또 지역 대학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출석한 실국장들은 공무원 내부의 승진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김해영 위원 물론 인력풀이, 승진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전적으로 그러한 의사를 실현시키기가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요 최근 보고에 의하면 매년 어린이들 한 60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기준으로 58% 정도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기계 환기설비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 환기설비 비율이 아직도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가 작년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칙으로 하자면 기계식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게 석면공사라든지 LED등 교체라든지 이런 것과 다 연계되어 있어서 공사 시기나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학교들은 공기청정기를 우선 설치해서 미세먼지 관리에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석면공사가 진행되는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기계식 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일반 공기청정기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또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문으로 환기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일선 학교 얘기를 들어 보면 필터 교

체가 6년째 안 된 학교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정화장치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필터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잘 확인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석면공사와 또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실태조사들을 학교마다 했는데요 대체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 학교들은 업체들이나 이런 관리들이 양호하게 되고 있는 편이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수 실태점검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3월 말까지 모든 학교의 필터 교체를 포함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김해영 위원 그것 잘 좀 챙겨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해영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 돌봄 전담사 1인이 돌봐야 하는 아이들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돌봄전담사 1인이 2개의 돌봄교실에서 40명가량의 인원을 담당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돌봄전담사의 어려운 여건이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경우에는 전담사 인원은 적지만 프로그램 강사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적하신 취지는 돌봄전담사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열 짐작을 해서 답변을 다 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두 기관이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창의재단은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교육위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관련 업무 중에서 수학·과학은 창의재단, 나머지 교과는 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2008년 이전에는 평가원에서 모두하다가 과학문화재단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바뀌면서 과학 대중화뿐 아니라 과학·수학 교육까지 다루는 범위가 넓어진 거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원에서 일괄해서 모든 과목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만 또 수학과 과학을 특화시켜서 창의재단에서 집중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성기선 원장님, 혹시 최근 창의재단에서 수행한 수학·과학 연구나 사업 중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찬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해당 원장님.

○박경미 위원 그리고 또 안성진 이사장님, 평가원에서 수학·과학 교육이 포함된 연구 어떤 것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성기선 예, 간단히 검토는 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의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수학 교육 관련 연구나 사업 서로 좀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성기선 일단 두 종류의 교과서 개발을 창의재단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거기 관련된 부차 자료들도 좀 검토하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안성진 이사장님은 어떠신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과학 관련해서는 과학교육 표준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미 위원 아니, 그건 창의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예, 그건 과학창의재단에서……

○박경미 위원 저는 KICE와 KOFAC이 서로가 수학·과학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파악하고 계신

지 여쭙 거였거든요, 양 기관이 서로 크로스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학과 과학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창의재단에
서 하지만 교수학습과 평가는 또 평가원에서 담
당하지요. 그리고 또 수학·과학과 다른 교과들
사이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평가
원하고 창의재단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로서는 상대 기관이 하는 일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력의 비대칭적인
분포인데요. 현재 평가원의 수학·과학 연구인력
박사급으로 35명이 있고요 창의재단은 11명입니
다. 그래서 수학·과학 교육 전문기관을 표방하
는 창의재단으로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 싶는데
요. 그런데 창의재단의 전문인력을 늘리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두 기관 사이의
인적 교류협력입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이사장
님, 수학·과학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또 양
기관이 MOU를 체결하고 자주 만나서 교류협력
많이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께 여쭙려고 하는데요.

일반고 중에 과학중점학교가 있지요, 올해 10
년 차를 맞는데요. 굳이 과학고나 영재고 가지
않더라도 일반고에서 심화된 양질의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
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과학중점 사업이 시·도교육
청으로 이관될 예정인데 시·도교육청에서는 기
존 사업에 밀려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총리님, 과학중점학교 후속사업으로 혹시 추
진하실 게 뭐가 있는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셨
던 과학중점학교가 2022년까지 진행되고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이 법이
실제로 실효성 있도록 현장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추가 이양 과제로 과
학중점학교 과제를 시·도교육감으로 넘겨서 그
런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자 합니다.

○박경미 위원 글썄요, 저는 중앙정부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구요. 어떤 시대적 요구에 맞게, 예를
들어서 융합교육 중점학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수정법이 작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그게 융합교육 지원법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에 힘써 주시
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창의재단이 개발한 알지
오매스(Algeomath)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 알지오매스를 이용하면 대수적인 과정, 그래
프 그리기, 기하 작도 같은 것을 소프트웨어에
일임하고 학생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 창의
력 개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위원장 이찬열 조금만 그냥 얘기하세요.

○박경미 위원 제가 추가질의 안 하려고요, 3분.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1분만 더 주세요.

○박경미 위원 알지오매스가 외국 소프트웨어를
벤치마킹해서 개발은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코딩까지 가능한 복합 소프트웨어가 됐고요. 그
리고 수학·과학·정보의 융합교육이 가능하고
또 현재 학생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
이는데요.

올해가 사업 3차 연도로 올해는 고등학교 내용
을 구현하면서 기존 시스템을 안정화·고도화하
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예산이
2017년에 10억, 2018년에 3억 그다음에 올해가
13억이에요. 28억,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28억의 국가예산이 얼마나 수업에 큰 변화를 가
져왔는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된 예라고 생각하
는데 부총리님, 현재 이 예산이 어떤 성격인지
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이 예산이 어떤 성격으로 이루어
져 온 것인지.

이게 특교였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특교로……

○박경미 위원 굉장히 예산 책정을 잘해 주시
기 는 했는데 특교였어요.

그런데 특교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 주
신 대로 특교로 10억, 3억, 15억 이렇게 편성돼서
했는데 시범사업의 평가가 매우 좋은 것으로,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국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교육위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안을 잠식시키고 안심시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장관님께도 이런 것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장관님, 혹시 에어 디바이드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고성능 공기청정 시스템을 갖춘 실내에서 미세먼지 등의 인공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계층과 생계 때문에 유독성 미세먼지에 온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계층을 나눠서 빗대어 한 얘기입니다. 요즘 여기에서 워터 디바이드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청정공기가 희귀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기준으로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율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74%, 중학교는 26.7%, 고등학교는 26.3%이고 학교마다 조금 설치비율 변동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공기청정기 설치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가 원래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의 일반교실에 먼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했고요. 중고등학교는 순차적으로 그 다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오늘 설치 의무 법을 통과하셨는데, 교육부가 갖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도시에 있는 학교들 다 설치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기계식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방학 중에 공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 방식으로 한다면 저희 예산이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한 2300억 정도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지금 미세먼지 추경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가 2300억 원 중에 1300억 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1000억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대중교통 무료정책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3일 동안 150억 정도를 쓰셨고 실질적으로 도로교통 감소량은 2%밖에 안 됐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고 공기정화기 렌탈비로 환산해 보니까 한 150억 원 정도면 4만 1667개의 공기정화장치를 1년간 대여할 수 있는 비용이더라고요. 서울시만 보니까 총 학급 수가 4만 2373개니까 이 돈만 있었으면 서울시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대여할 수 있는 비용이었던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급하고 또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으니까 제일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기청정기를 들이는 건데 정부 예산도 좋지만 일단 각 교육청마다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 건지, 지자체마다 지금 오만 가지 현금 살포하고 계시는데 아니, 사람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보다 이런 것 좀 우선순위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장관님 취임하실 때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앞당기셨는데 늦었지만 그것보다 올해 이런 공기청정기 먼저 설치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지 유출 사건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도 이와 같은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셨다고 어디 가서 인터뷰하셨는데 거기서도 이 시험지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시험지 보안시스템 및 관련자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시험지 보안시스템은 뭡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CCTV 설치 등 시험지 보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김현아 위원 관련자 징계는 제가 알고 있고요.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CCTV 설치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우선 그런 보안 점검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CCTV 설치에 대해서 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지 않으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 시험지가 보관되고 있는 장소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학교에서는 이 CCTV와 관련해서 많은 저항이 있다고 듣고 있고요.

저도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1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이찬열 추가질의 없으세요?

○김현아 위원 예, 없습니다.

KBS에서 2019년 2월 26일에 ‘시험지에는 QR코드, 화장품엔 색 변하는 라벨’이라는 타이틀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니까 CCTV 설치가 시험지 유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컴퓨터로 작성한 시험지 출력물에 고유 식별번호를 담은 QR코드가 인식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유 식별번호에는 누가 시험문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수정했는지 그리고 몇 부를 출력하고 기한 안에 파쇄했는지 등의 시험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 기업에서는 사내 정보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것 검토하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CCTV 설치가 올해 3월까지면 98%가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고요. 우선 CCTV 설치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 제안해주신 QR코드는 누가 시험 문제를 내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까지 점검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아 위원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이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정책이 조금 더 진보한 기술끼리 접목된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 시험지 유출과 관련된 것들은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송을 보시고 일선 학교 방문하셔서 어떤 방안인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공개하는 자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사립유치원들 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입니다. 모두 277개의 사립유치원에서 1229건, 103억 6972만 원 관련 적발됐습니다.

작년 10월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이후에 적발된 유치원도 상당합니다. 어떤 유치원은 작년 국감에서 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 폭로가 되고 나니까 딱 그때까지만, 10월까지만 부정행위를 하고 그 뒤부터는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온 국민의 분노로 그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회계 부정, 사적 사용 행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 부정, 사적 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몇 개 사례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 돌샘유치원 원장님하고 강동구 돌샘유치원 원장님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포 돌샘유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강동구 돌샘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그 행정실장에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 원~550만 원씩 44회에 걸쳐서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번 국감 때에도 지적이 된 꼼수를 써서 교비를 사실상 빼돌리는 사례입니다.

서울 강남 럭키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월 130만 원씩 급여 5850만 원, 휴가비 2100여만 원을 줬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학부모들께서 특성화비 부담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국감 이후에도 특성화비로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아

이베스트유치원을 보면 2018년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유치원 회계가 아닌 현금으로 약 3000만 원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비에 편입하지도 않고 실제 이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이 그 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1000만 원 정도만 환수 조치합니다.

이래 놓고 이 유치원 광주시 한유총 지부와 함께 사유재산 침해하지 말라고 떠들고 광주시교육청 앞에 천막 치고 점거 농성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정말 대단한 조직 아닙니까? 이 유치원은 하루에 1개, 1시간 이내라고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과다하게 시킨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서울 구로의 바니유치원,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합니다.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건데요. 화장실을 반으로 개조해서 조리를 하니까 위생상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교육청의 시정을 요구받고도 아직까지 시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고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의 핵심인 유치원 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면서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측 입장을 대변해 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김한표 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박용진 위원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했어요. 왜 화를 내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러셨어요?

다시 할게요.

○김한표 위원 맨날 남 탓이나 하고 말아야!

○박용진 위원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측 입장을 대변해 온, 그리고 유치원 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던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자유한국당, 이제 나옵니다. 이제라도 유치원 3법 처리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한표 위원 맨날 남 탓이야!

○박용진 위원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남 얘기하는데! 위원님, 원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만 하세요!

○김한표 위원 좀 양심을 갖고 해 봐, 발언도. 그러면 왜 고함을 지르겠어!

○박용진 위원 잠깐 정지시켜 주십시오. 남의

질의를 방해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김한표 위원 허구한 날, 맨날 남 탓을 하니 그렇지!

○박용진 위원 김한표 위원님,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김한표 위원 아이고, 제발 좀 그것 그만 좀 해! 왜, 참 그렇게 맨날, 허구한 날 남 탓이나 하고 그래? 발언을 할 때도 좀 품위 있게 하면……

○박용진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자, 이제 시작합니다, 다시.

○위원장 이찬열 자, 서로 존중하면서 하시자고요. 오늘 첫 전체회의니까.

○전희경 위원 정부 질타를 하세요, 정부 질타를.

○박용진 위원 남 질의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할 때 잘하세요.

○전희경 위원 정부 질타를 하십시오. 국회는 정부 질타하는 곳입니다.

○박용진 위원 전희경 위원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자기 할 때 잘하세요.

○전희경 위원 정부 질타를 하세요!

○위원장 이찬열 자, 이제……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제발 좀 본질에 천착을 하시라고요!

○박용진 위원 정부 질타는 제가 더 많이 했어요.

자, 계속 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시작.

○전희경 위원 만구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박용진 위원 다 끝나셨어요?

○위원장 이찬열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진 위원 이제 제 거 하면 되지요?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께 질의 들어가는데요.

3월 8일 기준 에듀파인 의무 사용 유치원 571개 중에 82.8%만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98개교 참여하고 있지 않지요.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이 이미 2월 19일에 예산 편성을 해서 3월 1일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3월 1일부터 의무화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용진 위원 교육부가 에듀파인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듀파인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부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교육부가 현재 고액·대형 유치원을 우선감사하겠다고 하던데요. 에듀파인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도 우선감사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난 10월 25일 날 저희가 유치원 유아교육 공공성 방안을 발표할 때 3월 1일부터 200인 이상의 대형 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감사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에듀파인에 참여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에듀파인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2월 달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 3월 15일까지 아직 에듀파인 도입을 하지 않은 유치원들에게 계속 촉구를 하고 3월 말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이찬열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교육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위원장 이찬열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용진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조치 말로만 그렇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구요. 대형·고액 유치원 중에서도 에듀파인에 참여하지 않는, 여기에 따르지 않는 유치원은 우선적으로 먼저 감사 실시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거는 이미 발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이찬열 김한표 위원님, 내용이 됩니까?

○김한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렵니다.

○위원장 이찬열 의사진행발언요? 나중에 좀 하셔도 되지 않아요?

○김한표 위원 아니, 지금 좀 합시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한표 위원 오늘 이 자리는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당을, 야당이라고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그게 어느 당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비하하고 폄훼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언하는 것 자체는 우리 국회의 관례상 그건 옳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도 야당입니다.

○김한표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정도로 발언한다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비하하고 또……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한표 위원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이건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잘못으로 다 그러는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에서 이걸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당도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미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자, 김한표 간사님.

○김한표 위원 팩스트트랙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여 놓고 또다시 왜 자유한국당 탓하고 또 야당 탓합니까? 이거는 위원들 서로 간의 발언도 어느 정도 정제돼 있어야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열 자, 이제 알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제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찬열 자꾸 이러시면 정회합니다. 정회를 또……

○김한표 위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찬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너무 그러시지들 말고 어차피 오늘 첫 전체회의인데 조금씩 양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유치원법이 지금 팩스트트랙에 걸려서 갈 정도로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것 가지고 지금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심사를 하고 안 되면 위원장인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서로 동료 위원님들을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다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학재 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예.

○박용진 위원 나중에라도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셔서 하시면 되지요.

○이학재 위원 제재 좀 해 주세요, 빨리.

○박용진 위원 그런데 굳이 동료의원이 발언하는데 그거를 제지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이학재 위원 사회자님, 제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찬열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의원이 얘기할 때는 다 들어주시고 내 시간이 왔을 때 그때 말씀들 하세요. 그러면 충분하니까.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 장관님, 혁신도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학재 위원 수도권 집종의 근원적인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학재 위원 153개가 대상인데 150개 이전 완료를 했는데.

그런데 혁신도시에 정주여건에 대한 임직원들의 불만 때문에 가족동반 이주율이 48%밖에 안 됩니다. 왜 동반 이주를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녀교육 때문이 42%, 배우자 직장이 45%,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교육에 대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조사를 한 건데 50점입니다. 50.9점, 51점입니다. 그리고 가족동반 이주율 1위인 도시가 부산인데 63.8%인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부산 이전 공공기관 재직자 자녀 268명 중에서 부산 소재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113명입니다. 불과 43%밖에 안 됩니다.

가족동반 이주가 낮은 이유를 모든 혁신도시에서 다 조사를 해 보면 부산혁신도시나 광주전남 혁신도시, 나주빛가람도시나 진주혁신도시나 다 조사를 해 보면 지역 언론에서 일관되게 이야기

하는 것이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합니다.

장관님, 혹시 혁신도시가 조성이 된 지자체나 또 이전한 공공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이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를 위해서 또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꾸준히 요청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충북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요청을 하고, 특히나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연구를 했는데 그 조사에도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특수목적고나 자사고 등이 필요하다 이런 조사가 나온 것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학재 위원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이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거환경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2기 혁신도시 플랜이 제시가 되는데 그것은 결국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그냥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동반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으신 것 같은데……

혁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7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의 투자나 또 외국인 투자와 함께 들어오는 내국인들의 투자가 제대로 되려면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그 종사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도 자사고나 특목고가 필요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제한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혁신도시라든지 또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자사고·특목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는 자사고·특목고로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교육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고등학교를 자사고나 특목고를 만들어서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이후에도 계속 비전을 갖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이학재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지역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교육환경이 개선이 안 된 일반적인 지역하고 똑같은 일반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하는 것도 꺼리는 것이고, 그 지역의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청라국제도시라고 있는데 여기에 한화금융타운 본사가 2023년까지 이전을 하게 되면 7000명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서울 하나고와 같은 청라 하나고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자사고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들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등 새로운 교육환경이 필요한 도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자체와 그 지역의 인근대학들이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그 도시마다의 특성화된 산업과 연계한 비전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더 대안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분 더 드렸던 겁니다, 이학재 위원님. 새로 오서 갖고.

○**박찬대 위원** 박찬대 위원입니다.

오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공기청정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의결이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 27만여 개의 교실 중에서 한 11만 5000 정도의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급 예산을 생각해 보면 1대 당 한 200만 원을 책정했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부총리께서 얘기한 것처럼 한 230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1000억 정도는 아까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공기정화설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 부분은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결정합니다.

○**박찬대 위원** 혹시 교육부에서 제품기준이라든가 성능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성능과 관련해서 규격, 용량이 학교 교실보다 1.5배 용량으로 하도록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면 전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는데,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어린이 마스크 국가기준도 만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대 당 수백만 원씩 되는 교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최소 성능기준 같은 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런 규제가 앞서다 보면 조속하게 공기청정기라든가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혹시라도 시간이 지체될까 하는 염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공포 후에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이런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돈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관리 감독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런 아주 세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미 기본적인 기준과 지침들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설치 중이거든요. 조금 더 세심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또 구매방식에 대해서도 임대하는 방법과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같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매업체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쩌면 사족일지 모르겠지만 일감을 몰아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엄중하게 관리해서 우리 국가적인 관심이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에 예산이 허투루 사용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되는 우려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방과후강사들이 임금체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접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지금 알고 보니까 방과후강사 임금체불 문제가 비단 오늘 또는 어제의 문제가 아닌데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외부 위탁업체에 소속된 강사들이 임금체불로 지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가 한 680명 정도의 강사가 지금 위탁업체를 통해 가지고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거든요.

혹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당국이 강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인력 아웃소싱 업체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도 그것 좀 살펴봤는데요. 위탁업체 강사료 연체 문제 때문에서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면서 학교가 강사에게 직접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서울이 학교 수가 29개 학교로 가장 많아서 문제가 좀 컸는데 이렇게 직접 강사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강사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거기에 교구나 재료비 같은 경우도 강사가 직접 조달을 하고 학부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사실 이 문제는 대기업의 사내 하청 문제와 판박이처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관련된 강사료가 체불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교육의 질이 저하가 되고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장한테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립학교재단들에 대한 징계권 남용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청심사에서 인용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그 중에 사립재단이 한 76%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립재단 교원의 수가 국공립 교원의 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청심사에 인용되는 건수는 사립재단이 훨씬 많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진석 저희 보고서 10쪽에 보시면 저희가 올해 추진할 두 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장을 찾아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되고자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적정한 징계 절차나 내용을 확정하지 못해서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순회교육 또 관련자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박찬대 위원 사립학교 재단들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해서 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찬대 위원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건의 사유 또는 개연성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진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장관님, 지난 2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학력평가 관련해서 중·고등학생 기초학력이 전년보다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통상적으로 11월에 발표되던 기초학력평가가 3% 표본집단조사로 바뀐 이후 작년, 그러니까 2017년에는 그나마 발표를 하더니 올해는 발표조차도, 2018년에는 발표도 안 하고 3월 달에 발표하신다고 그러고, 대책과 함께 발

표하신다고 그러신 게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맞습니다.

○전희경 위원 대책이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3월 말에 그 결과와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희경 위원 저는 너무나 간단한 것을 교육부가 너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 장관님, 처음에 전수조사하던 기초학력평가를 왜 지금 3% 표본집단만 하게 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일제고사로 전수조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또 다른 경쟁이 돼서 학교의 서열화나 아이들에게 경쟁교육 자체로 계속 그렇게 확산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 부분들은, 일제고사 방식을 표집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전희경 위원 저는 절차를 여쭙았는데 편견을 얘기하시네요. 이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느닷없이 시험 시행 5일, 전수조사 5일을 앞두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표본조사로 해서 바꾸자고 그러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때 정권 교체 초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내고 브리핑하니깐 교육부에서 보도자료 브리핑 보고 느닷없이 전수조사하던 것을 표본조사로 시험지까지 다 찍어 놓은 상태에서 바꾼 것입니다.

아까 서열화 말씀하셨지요? 서열화가, 어떻게 이게 서열화가 됩니까? 기초학력조사가 반에서 1등부터 저 밑에 있는 꼴찌 하는 학생들까지 줄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 그야말로 학교에 오는 게 괴로운 아이들의 분포가 얼마나 되는지를 교육현장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입니다. 어디에 서열화가 있습니까, 여기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일제고사 방식이 아니어도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제고사 방식으로 하다 보니 학교 간에 경쟁이 생겼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경쟁으로 그렇게 압박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전희경 위원 장관님, 장관님만 압박감을 느끼십니다. 1년에 한 번 2개 학년, 중학교의 한 학년, 고등학교의 한 학년 실시하는데 누가 그렇게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까? 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알권리이자 정보공개 의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서열화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왜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이 되어서 가지고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용어 하나를 똑똑히 못 쓰십니까? 일제고사가 어디 나오는 표현입니까? 일제고사라는 말이 교육에 어디 있습니까? 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학업성취도평가를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 간에 경쟁을 유발하게 되는 문제를……

○전희경 위원 학교 간에 경쟁을 유발해야 교육을 열심히 가르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1등 하도록 만들라고 학교를 압박을 주는 게 아니고 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최소한의 이 학생들을 구제하라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괴롭고 교육에서 나오되고 아예 교육에서 등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표본조사로 바꾸더니 학력은 저하됐다고 말씀하시고 발표도 안 하고, 이제는 표집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좋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게 투명성이 떨어지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전수조사해서 투명하게 어느 학교가 어느 정도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세요.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라고 해 놓으시고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추진’, 아니 있던 것도 그렇게 개악하시듯이 바꿔 가지고 다 뒤로 결과 감춰 놓고 표본집단조사니 하면서 통계 데이터 마사지하실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3월까지 통상 작년 11월이면 발표하던 것을 못 합니까?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사교육비도 제가 의심이 가요. 사교육비 관련된 통계를 통계청하고 같이 발표하기 때문에 못 주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교육비도 제가 들은 바로는 학생 1인당 7%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공개해야 될 자료 감추시고, 해야 될 일 안 하시고……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전희경 위원 이것 전수조사로 반드시 바꾸십시오. 서열화 아닙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발표는 이미 1년 전에 다 날 짜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언제 발표하고 말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감추거나 발표를 안 하려 한 것 아니구요. 내일 통계청이랑 동시에 발표하면, 말씀대로 사교육비가 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희경 위원 증가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것도 대책 까지 포함해서 보고하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학력평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기초 학력평가 필요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게 맞춤식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저하된 아이들이 없도록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꼭 동시에 모든 아이들을 하 루에 같은 시험을 보게 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 지는 않습니다. 이 기초학력평가를 한꺼번에 시 험을 보게 될 때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 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 을 시험을 못 보게 하거나 이런 학교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기초학력평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초학력수준이 국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와 있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이것을 다 기본적인 역량까지 끌어올릴 것인가는 저희들의 과제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최적화될 수 있 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다 전수조사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맨날 초가삼간 태우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초가삼간 태웁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전희경 위원 님.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 니다.

저희 지역에 아주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서울 시의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가 중학생 무상급식으로 정치적 쟁점이 있 던 때가 있었는데 서울의 고등학생들은 무상급식 이 없었습니다. 김한표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말 씀은 ‘의무급식이라고 합시다. 의무교육이라고 합 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의무교육과 조금 다 르기는 하지만 급식비가 면제되게 됩니다.

장관님, 서울시의 고3 학생들이 올해부터 급식 비가 면제되면서 한 가정에 1인당 얼마 정도 비 용이 절약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급식비요?

○서영교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급식비는 한 월 5 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고등학교……

○서영교 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고3 학생이 1년 에 약 80만 원 정도 급식비가 지출되는데요. 서 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가 각각 분담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3. 그런데 서울시의 고3이 이렇게 이루 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하기 전에 인천·광주·세 종·강원·전북·전남은 이미 2018년 1월부터 실 시가 되었습니다. 한 집에 1명당 연 80만 원씩이 면 얼마나 큰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무상급식 실시가 문재인 정부 들 어와서 그리고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고3 학생들이 학교에서 밥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부모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 이런 것을 하여간 교육부가 좋은 정책으로 선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님 일이 많으셔서 1인당 얼 마나 줄어드는지도…… 1인당 한 월 5만 원 정도 되겠지요. 연 80만 원 정도니까 큼니다. 이런 부 분으로, 국민이 낸 세금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이런 제도 좀 더 잘 선전하고 알려 나갔으면 좋 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2학년까지 그리고 내후년에는 1학년까지 전면 의무급식이라고 할까 요,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되면서 계속 누누이 주장했던 내 용이 있습니다. 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 표발의했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 비를 부모님들로부터 부담을 덜어 드리는 내용입 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으로 무

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냈던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아이들에게 우선 끌고루 돌려 드리는 제도 이것을 무상급식·무상교육 외에 좋은 용어를 교육부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올 9월부터 실시한다고 교육부장관님께서 한 학기 정도 당기셨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게 1년으로 치면 약 1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우리 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을 줄여 주고 아이들의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 같아서 저는 아주 획기적인 성과라고 합니다.

장관님, OECD 국가가 몇 개국 정도 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금 35개국 정도 됩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또 알기로는 36개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고등학교 교육비를 학부모가 납부하는 나라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이 유일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5000만 명 그리고 3만 불 소득, 6000억 불 수출로 세계 7위, 그 분야로 세계 7위에 등극한 우리나라가 이 교육을 부모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해야 되는데 법안 통과도 필요하고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재정 확보는 기재부하고 잘 논의를 하고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지금 이걸을 좁혀 가고 있고요. 늦지 않은 시기에 방법을 합의해 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는 여당이고 또 장관님은 기재부와 잘 협상해서 좋은 소식이 조금씩,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꼭 잘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오늘 고등학교까지 설치되는 것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잘될 것을 꼭 기대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유치원에 갔더니 다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경로당 어르신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방마다 하나씩 비치해 드렸습니다. 공적인 공간을 갔더니 집보다 더 나은 곳, 이런 곳이 되는 게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아주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까지 있는 학교, 학교가 잘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열 서영교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홍문종 위원입니다.

장관님, 출마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웃음)

○홍문종 위원 덕담하려고 그러니까, 덕담하려고.

장관님이 우리 야당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잘하는 일도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관이라는 직책이 잠깐 하다가 말잖아요. 그리고 또 출마한다고 그만두고. 교육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장관님께서, 부총리라고 불러야 되나? 하여간 교육부를 맡으신 이후에 꼭 하시고 싶은 일이 뭐 있으셨어요?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뭘 하시고 싶으셨습니까? ‘내가 장관으로서 난 이걸 하고 싶었다’ 뭐 이런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금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고교 무상교육이나 고등교육 혁신 방안이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나 이런 것들 하고 싶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셨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선생을 해 봤고요, 학교에 있어 봤는데 교육부가 해야 될 가장 큰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현장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제가 사실은 교육위원

때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교육현장으로부터 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장관님이 성공한 장관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으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고등학교가 됐건 대학이 됐건 유치원이 됐건 말이지요.

저는 장관께서 전교조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몇 년 만에 청소하면서 장관님 모셨다고 그러는데……

또 제가 무슨 한유총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니깐, 한유총이 하는 일 다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화 자체를 안 하세요? 왜 만나 주지를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아예 원초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건데, 왜 그러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모든 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홍문종 위원 그런데 왜 안 만나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사립유치원 일부 회계부정 문제가 있고 난 이후에 에듀과인을 도입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했고 그게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홍문종 위원 아니, 에듀과인을 도입하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고지순한 일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고지순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회계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여서요.

○홍문종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유치원들한테 에듀과인을 도입할 수 있는 무슨 시간적 여유를 준다든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드립니다.

○홍문종 위원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우리 교육부가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 뭐 행정자치부도 아니고 말이지요, 어디도 동원하고 경찰서까지 동원해 가지고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제가 보기에 이것 교육부장관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옛날의 내무부장관도 아니고요.

아니, 교육부장관은 그분들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든지 그분 편에서, 아니 전교조를 찾아가시는 분이 왜 안 찾아가세요? 아니, 그분들을 찾아간다고 그래도 얼마든지 장관님께서 또 교육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장관님이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있다, 그게 답답한 것 아닙니까?

죄송해요. 5분밖에 없어서 제 얘기를 주로 하겠는데요. 제가 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될 수 있으면 더 찾아가서, 왜냐하면 장관님께서, 교육부가 다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관님 말씀 한마디에, 방침 하나에 죽고 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일단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전문대학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도 사실 전문대학 갈 때 이 학생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학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를 여러 번 떨어진 학생들이거든요.

아까 김해영 위원님께서 지방대학 출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데 교육부 전체야 뭐 전문대학 출신은 아마 거의 안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태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버려진 정책이에요. 이것 아무도 관심이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몰랐습니다. 거기 가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끝났어요?

○위원장 이찬열 예.

○홍문종 위원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하나만……

○위원장 이찬열 설명이 너무 길어서 그렇지.

○홍문종 위원 미안합니다.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다음에 안 하시는 거지요?

○박용진 위원 늘 다음에 또 하셨어요.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다음에 또 하시지요.
 ○홍문종 위원 1분만 할게요. 질문 자체를 안 했어요.
 ○위원장 이찬열 아니, 딴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초선도 아니신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서영교 위원 드리세요. 저희가 양해하는 걸로……
 ……………
 ○홍문종 위원 1분만 할게요, 1분만.
 장관님, 과란사다리 프로그램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홍문종 위원 전문대학을 왜 이렇게 홀대를 하세요? 사실은 개네들이 제일 필요한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5개 뽑는데 전문대학은 하나밖에 안 뽑았다 그래요.
 사실 이것 드릴 말씀이 많은데, 국가우수장학금도 올해 710억이 계속 유지되고 책정되고 그런데 전문대학은 없어졌잖아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전문대학과 관련해서 지원도 늘리고 전문대학의 특성화 사업도 더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홍문종 위원 태부족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리고 예산도 더 많이 늘렸습니다, 위원님.
 ○홍문종 위원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장학금 안 주고, 에듀파인 같은 건 15개 선정하는데 대구에 달랑 하나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문대학 총장들이 저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전문대학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교육위원회에 덜렁 가 있어 가지고 전문대학 상황 나아지는 게 뭐 있느냐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버린 학생들이 아닙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전문대학하고 저희 교육부하고 실무담당자들하고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혁신방안과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대학이 반드시 그 지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문종 위원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실컷 말씀해 놓으시고 질문

은 마지막에 가서 하시는 바람에 아주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다음,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미세먼지 쪽 얘기 잘 들었고요.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학교의 42%가 없고 특히 중·고등학교는 70%가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시간차, 타임래그가 있잖아요. 특히 중·고등학교는 30%밖에 없다는 얘긴데 그 타임래그를 위한 대책들은 혹시 있습니까, 미봉책이라도 할 수 있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게 너무 시급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 예산과 또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어떤 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신경민 위원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 이런 좋은데 미세먼지 창문필터나 방음벽 설치 같은 시간차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요청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팬찮은데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꽤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마스크는 시·도 교육청별로 지금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학종의 문제점에 대해서 죽 지적을 한 것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고교 내신 신뢰도 문제도 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시험지 유출 문제는 그때 국감에서도 많은 자료가 나왔고 지적을 했고 조치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제가 시험지 오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드디어 3개월 만에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처음으로 취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3개월 이상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받았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전체 학교의 4분의 1이 조금 안 되는데 하여튼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1618개 학교에서 4475건.

그리고 지역차는 엄청납니다. 광주·울산·충남은 아주 굉장히 많고요, 제주·서울·대구는 좀 적고요. 그리고 사유는 출제 오류가 제일 많고 시험범위 오류가 그다음으로 많고 시험관리 오류가 있고요. 고교 내신이 시험지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시험지 오류 문제로도 흔들린다는 얘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도 시험 문항 오류가 이렇게, 그게 이제 한두 문항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출제하는 것을 공동출제하는 방식을 갖는다는 것, 시험출제 문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평가원을 통해서라든가 공동출제 방식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교사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험 출제와 관련해서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주 예전에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도 공동출제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신뢰도는 뭐 그렇다 치고요. 이것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재시험을 칠 것 아니겠어요? 이것 처리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봤더니 이것도 들쭉날쭉해 가지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처리지침이 있는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학종하고 고교 내신 가지고 대학입시를 사실 해 나가는 큰 기둥 중에 하나인데 이 기둥이 2개가 다 흔들려서 완전히 대학입시라는 것이 이런 사상누각이 없다 이런 결론을 지금 내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태인데, 또 시·도교육청별로 다 달라서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라는 게 지금 학생마다 다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재시험 관련해서 세부 처리기준과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더 여쭙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오늘 다행히 학교보건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남는 걱정들은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할 때 강당하고 학교 체육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환기나 공기정화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강당이나 체육관에 공기정화 시스템을, 공조 시스템을 얼마나 설계상 반영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 사실은 실망스러웠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공기정화장치도 설치가 대부분 안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모든 학교에 전수조사하는 상황에서 체육관에 대한 것도 전체로 3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3월 말까지 전수조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다음으로 유치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행히 한유총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 의해서, 개학 연기는 결국 학부모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루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학교현장이나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실제로 그런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그때그때 사실은 발목을 잡아왔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출생아가 32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아이들이 곧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치원에 대한 투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또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그

런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올해로서 종료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일몰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누리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유보통합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는 데요.

이게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처 간의 이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해서 저는 올해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일몰되는 시기에 국회에서도 이 유보통합이나 유아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공론화되는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넘어온 상태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늦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기재부가 각 부처에 예산편성 지침을 내리는 게 3월 하순,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각 부처는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5월 말까지 또 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내에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재부는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유아교육특별회계를 과연 포함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질 것인가, 그게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안 편성지침이 통보되기 전에 뭔가 정부 내의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이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게 돼야, 아무래도 법상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당연히 그것은 종료된 것으로 봐서 아마 편성지침을 또 각, 교육부로부터 예산 요구를 그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 우리가 누리과정 특별회계, 물론 어떤 방식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교부금을 조정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누리과정 특별회계가 편성이 돼서 규모는 계속 조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감소를 했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주니까 그것에 따라서 감소를 했던 것인데, 저는 제재에 재정 당국과 논의를 해서 액수는 고정을 하고, 액수를 고정하면 아이들은 즐기 때문에 실제로 1인당 누리과정 예산은 더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조로 한 3년이든 5년이든 유지를 해서 그렇게 유아교육의 공적인 책임도 높이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는 게 어떤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는 공론화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이 좋고, 그러나 저희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열심히 추진해도 사립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일부 또 담당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국가책임을 확대하면서도 사립유치원들이 겪고 있는 교사들의 질을 높이고 또 처우를 개선하고 이런 문제까지가 다 연동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나눠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유아교육과정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유아교육을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양질의, 동질의 그런 좋은 교육들을 할 수 있을지를 유아 회계에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적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논의를 국회와 또 관련 당사자들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승래 위원 패키지로 다 정리가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사실 예산 문제는 지금 회계는 일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논의 순서를 회계에 대한 처리를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를 패키지로 추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훈 위원** 임재훈입니다.

장관님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잠깐 1~2분 쉬어 가시라고, 나영선 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잠깐 나오세요.

오늘 업무보고 처음 하셨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1분 정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아프리카 5개국의 연구 실태조사 등등 파견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나영선** 저희가 나미비아 그다음에 잠비아 그다음에 DR콩고, 말라위 그다음에 보츠와나……

○**임재훈 위원** 좋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나영선** 죄송합니다.

○**임재훈 위원** 잘 숙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KOICA하고 업무 영역이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닌지 그걸 여쭙 보려고 했거든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나영선**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OICA는 그 전에 한 수십년 동안 그런 직업 교육훈련 ODA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KOICA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것, 건물을 지어 주고 또 거기에 일괄된 기계장비를 들여 주는 사업이었는데 저희 BEAR 사업, 말하자면 아프리카 사업은 노동시장 수요분석 그다음에 커리큘럼 개발, 교과서 개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지속가능한 그들의 맥락에 맞는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했습니다.

(이찬열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임재훈 위원** KOICA하고 나영선 원장님 계시는 직능원하고는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쪽하고도 협력할 건 협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나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훈 위원** 장관님께 그리고 차관님하고, 정종철 국장님도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유심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대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하고 비닐보양 작업한 거거든요. 올 초인가요, 장관님께서 현장방문하셨는데 제가 가지 못해서 저도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현장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애쓰시는 건 압니다마는 하여튼 공사하고 나서 저렇게 돼 버렸어요. 바람만 좀 불면 석면이 그냥 태풍처럼 날아가게 돼 버렸습니다.

다음 화면 좀 한번 봐 주시지요.

보시면 역시 제거되지 않은 석면 그리고 육안으로도 확실히 확연히 확인될 수 있는 석면 이것이 남아 있는 거지요. 사실 1급 독극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인천 지역에서 석면 모니터단 운영 횟수인데 기상천외한 통계자료입니다. 0.2회, 0.3회, 이견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과 개념으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이지 0.2, 0.3회, 0.5회는 어떤 기준인지 한번 좀 여쭙보고 싶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한번……

마이크 꺼졌네요.

(조승래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97년도부터 워낙에 위험한, 특히 석면 중에서도 위험한 게 갈석면인데 이것이 또 검출됐어요. 이게 97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던 건데, 이것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이게 편차가 좀 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임재훈 위원** 2027년도까지 3조 원을 투입해서 석면 제거를 하시잖아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고 잘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단 운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니터단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런데 위원님께서 인천의 사례를 주셨는데 또 저희가 나가 본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 모니터단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개하면서

해서 학부모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확인된 모범적인 사례들의 학교 선례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지적이 되는 학교들은 실태점검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 부분들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훈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 한 군데의 학교도 안전에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독극물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인천 지역은 40개 학교 중에서 32개 학교가 시민단체에서 1명만 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대충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훈 위원** 모니터단 제대로 구성해야 되고 관리 감독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동구의 어느 S초등학교에서는 해체작업을 하는데 또 음주 작업까지 해 버렸어요. 제가 음주운전은 들어 봤습니다만 음주 해체작업은 또 처음 들어 봤습니다. 역시 관리 감독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1개 학교당 이게 얼마 투입되는지 아시지요? 1개 학교당 석면 해체작업 하는 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재훈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임재훈 위원** 그렇지요.

정 국장님 아세요?

○**위원장 이찬열** 금액을 미리 얘기해 드리세요.

○**임재훈 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열** 그냥 하세요.

○**임재훈 위원** 통계를 받아 보니까 최근 3년간 2222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작업을 했는데 그중에 462개교에서……

학생들을 격리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돌봄학교, 방과후학교, 병설유치원들이 계속 운영되면서 석면 해체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철저하게 격리시켜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학 중에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이 저희가 석면 해체공사와 관련된 매뉴얼에 다 자세하게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그것을 잘 적용하면서 시행을 하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굉장히 잘되고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특히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업체 관리나 이런 것들은 또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지역적 차이는 학교마다의 차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다시 엄격하게 책임 있게 관리 감독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교마다 교실이나 또 석면 공사하는 공간이 조금 차이가 나서 예산은 일괄적이지 않습니다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인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면서도 말씀하셨듯이 돌봄이나 이런 게 또 방학 동안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다른 별도의 공간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재훈 위원** 제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이 법안소위 때 통과될 것은 확실하고요.

장관님께서 마침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환경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달 2월 21일 날 토론회를 개최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각 부처 간의 평평게임 정도 돼요. 그래서 학교 석면 해체작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독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의 책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해야 하는 그 책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챙겨 가겠습니다.

○임재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 국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쭙보려고 했던 0.2, 0.3, 0.5 그것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제가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차관입니다.

○임재훈 위원 예.
○교육부차관 박백범 아마 그 표를 보시면 한번 나가서 사진회의 하고 비닐보양작업을, 2개를 한꺼번에 본 것을 0.5, 0.2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봐도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훈 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사전설명회……

○위원장 이찬열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임재훈 위원 사전청소, 비닐보양, 잔재물 조사, 4단계가 있잖아요. 잔재물 조사할 때 가서 앞의 업체가 세 번 사진 찍은 것을 보고 평가를 한 게 0.2, 0.3이예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그걸 한 번에 다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임재훈 위원 사진을 보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이게.

○교육부차관 박백범 그건 원래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아닙니다.

○임재훈 위원 말이 안 되지요, 이것.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정 국장님 말씀 한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찬열 아직 안 끝나셨어요?
○임재훈 위원 예, 죄송합니다.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정종철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인식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실제 현장 다녀왔던 모니터단, 특히 시민단체 활동과 학부모를 겸하고 있는 분들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향후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훈 위원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훈 위원 이걸 숫자적인 놀음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정종철 예.
○임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바른미래당이예요.

김한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취한 조치 보니까 6일 날 열여섯 학교 단축수업 한 것이 전부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의 엄마들이, 저도 물론 손자·손녀가 있습니다마는 ‘핸드폰에 떠 있는 최악의 상태 그걸 점검하면서 애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참 가슴 아프게 얘기를 하던데, 휴업하면 안 됩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 면역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날 꼭 수업을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휴업과 관련한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광역단체장 그리고 시·도교육감이 권고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장 재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교장선생님들은 또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되는,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휴업 결정을 잘 못 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한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때 교육부가 필요하고 교육청, 감독관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겨 놓으면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휴업하는 것을 꺼리는데 그럴 때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조치를 좀 취했다더라면……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불시 점검차 나가신 것까지는 좋은 일인데 그러나 사전에 어느 학교 가겠다고 그런 정도의 예고 정보를 주고 가서서 불시 점검이 되었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아마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 권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이 무엇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거의 비슷한 취지로 제안을 하고 공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거의 비슷한 취지로 제안을 하고 공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거의 비슷한 취지로 제안을 하고 공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거의 비슷한 취지로 제안을 하고 공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거의 비슷한 취지로 제안을 하고 공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거의 비슷한 취지로 제안을 하고 공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거의 비슷한 취지로 제안을 하고 공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거의 비슷한 취지로 제안을 하고 공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중장기적인 교육 과제들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당연직 위원 2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교육계 추천이 단 1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15명 중에 11명의 위원이 정권과 여당 몫이 되어서 과연 중립성 유지가 되겠느냐, 정권 바뀌면 또 내보내고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국회 토론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들은 저희도 적극 수용해서 법안을 낼 때 좀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자꾸 내보내고 또 나가게 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너무 이념적으로 그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교 평준화 문제 때문에 자사고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해찬 초대 교육부장관께서 ‘시장원리 도입해서 교육개혁 이루겠다’ 하면서 ‘교육도 경쟁과 시장원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등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사고 관련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도 열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한 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잘 말씀드리고 개정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배점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다른 지방들에서는 한 70점 이인데 전북만 20점 높여서 80점으로 책정하고 등등……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아주 유의미한 얘기가, 이시종 충북지사께서 ‘우리는 자사고 유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 현 정부 정책하고 이념하고 좀 배치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왜 이런 말씀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시종 지사께서는 지역에서 자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말씀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사고가 14년부터 5년 단위로 평가하게 돼 있고요. 14년도의 기준이 7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60점으로 점수가 하락화됐다가 다시 70점으로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교육감의 권한으로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북과 같은 경우에 자사고가 필요하다면 충북교육감과 설립에 대한 논의를 우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절차상.

○**김한표 위원**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좀 제 말씀을, 권고말씀 드리면 자사고에 있는 학교 당국자들하고도 한번 좀 만나셔서 얘기도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사고에 관한, 지금 이 정부하에서 단체장을 맡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 같은 분도 자사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유치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듯이 이런 부분을 힘으로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너무 밀어붙이지 마시고 또 자사고 관계자분들 한번 좀 만나셔서 얘기도 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몇 분은 좀, 교장선생님 말씀도 들은 학교가 있는데 자사고가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고 그렇게 되고 있으면 계속 이 평가 기준에도 별로 문제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세부 항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게 70점이라고 하는 점수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본래 취지대로 학교 설립해서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이 점수가 그 학교의 폐지까지 나오는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폐지목표로 높아졌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저도 잘 이해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걸 챙겨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고 계속하면 안 되나요, 정회하지 말고? 한 시간 정도면 끝날 테니

까.

○위원장 이찬열 그러세요? 그러면 그건 제가 얘기하고 하시자고요.

먼저 한유총 관련해서, 지난 3월 초에 개학을 연기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장관님을 비롯한 관련 교육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서로 대화가, 소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쪽에서는 백기를 들었으니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유치원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학부모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부 대형 유치원 원장들에서 문제가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작년 국정감사 때도 유치원을 2개인가 3개 하는 사람이 야산을 하나 사 가지고 거기하고 체험학습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연간 1억이 넘는 돈을, 유치원 돈을 빼먹는다는 이런 사실에 저는 아직도 아주 귀가 의심이 됩니다. 그러는가 하면 여기 수도 없이 많은 유치원 원장님들도 왔다 가지고 했는데 20명, 30명 되는 원장님들은 와서 옵니다, 울어. 이렇게 양극화된 현실에서 그분들이 지도 부에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유치원 교육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김한표 간사님께서도 손자·손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손자·손녀 다 있습니다. 또 조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교육을 생각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여야가 유치원 원장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유치원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한두 달 사이에?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간강사법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강사법에 대해서 각 대학…… 대학에서만 얘기가 나옵니다, 대학 자체에서만. 시간강사법은 대학협의회에서, 대학도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또 정부에서 나간 사람들도 합의한

것이고 또 시간강사 대표자들도 합의를 한 사항이고 이런데 대학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걸 가관도 아닙니다. 가관도 아니야. 어떻게……

제가 느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은 안 그러겠지만 일부 대학에서 그런 행태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 교수 하나도 없이 돈 내는 학생들만 있었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거기는. 돈 쓰는 직원들 한 명도 없고 돈 내는 학생들만 있어야 속이 후련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대학이 무슨 상아탑이나, 돈탑이지’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각오하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항의전화하는 대학, 교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작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각 대학의 시간강사 시수…… 전임강사, 겸임교수·조교수 이상 전임다 해서 시수하고 강사료 정리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꿩 구워 먹은 소식입니다. 그것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안 되면 대학하고 얘기가 안 됩니다. 반드시 해 가지고……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장님,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학이 최종적으로 강의가 폐강이 되는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게 결정되고 최종 정리가 되는 게 한 3월 하순쯤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 얘기고 지금 그 대답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이 어땠느냐, 중요한 건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강사를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였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느 한 대학 같은 경우는 시간강사들이 시수를 책임지는 게 30%인데 시간강사들한테 나가는 강사료는 1%라는 거예요, 1%. 그 대학에서 제일 많이 시간강사 조정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 10월 31일 기준, 국정감사 기준이니까 그걸 해 놓고 나면 각 대학의 평가 때 시간강사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평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재정지원 다 그것 이상으로, 재정지원에 영향을, 타격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든 게 있으시면, 그것 안 만드셨으면 교육부가 뭔가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빨리 좀 하나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위원장 이찬열** 하여튼 유치원법에 김한표 간사님, 조승래 간사님, 임재훈 간사님 특별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벌써 3개월 지나 갑니다. 180일 중에 벌써 3개월 지나가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고 하는 일이니깐 3월 달 안에 멋있게 합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유총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치원 3법은 한유총에서 나서서 자진해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냥 계속하시지요.

○**위원장 이찬열** 아니, 그래도 생리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당 간사님들 합의에 의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사는 도시락이 준비돼 있으니깐 순서표를 좀 보시고 여유 있게 가서 개별적으로…… 장관님을 포함한 공직자님들은 고생들 조금 더 해 주시고요.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 아까 어느 분이 다음 총선 출마하시냐고 물으니까 웃으시던데 학부모들 심정은 어떨지 아세요? 장관은 웃으시면 되지만 학부모들은 교육정책 또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웃으시는 게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던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들 입장은 어

떨지.

작년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교육 여론조사하는 데에서 보고한 걸 보면 우리 교육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가 65%, ‘비전이 없다’가 62%, ‘국민여론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게 41%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자료, 고교 무상교육 계획 관련된 것 한번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2018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고교 무상교육 정책 연구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장관께서 10월 2일 날 취임하셔서 가지고 ‘무상교육 2019년으로 앞당겨서 실현하겠다’ 그다음에 10월 10일 날 기자간담회 때는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취임사 말씀하신 지 며칠 만에 한 학기, 6개월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돼 오던 고교 무상교육 정책 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아직 발표도 안 하고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고교 무상교육 계획을 어떤 식으로 시행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여기에 담겼을 텐데 이 내용을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졸속인 취임사, 기자간담회 때 얘기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 보세요.

방과후 영어수업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2018년 2월 20일 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종전 교육부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죽 돼 왔는데 장관께서 10월 4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 때 유치원 방과후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 입장 정리했다고 하고 그 뒤에는 초등학교도 허용하는 걸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발표를 안 합니다.

다음, 학업성취도평가 마찬가지로입니다. 평가 결과 아까 지적받은 대로 지금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시간강사법, 외교·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해서 내려 보내고 강원교육청·울산교육청에서는 기준 완화한다

고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정책이 서로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것 밀어붙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년에 우리 법안 할 때 얘기가 같이 있었습니까
다만 이것도 다시 어느 날 갑자기 또 기간 제한
규정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교육현장들이, 아까 교육정책 여론조사
나온 것하고 마찬가지로 일관성 문제, 비전이 없
는 문제, 여론이 반영 안 된다는 문제 이게 계속
지적됩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계획들에서조차 지
금 이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

장관께 왜 제가 총선 출마 여부를 웃지 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학부모는 다음에 장관이 새로
오면 이 정책들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
사숙고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묵혀 놓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을 빨리 공개해서 정상적으로
국민들도 알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리고 장관께서
이런 지적을 다시 한번.....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해 주시지요.

○곽상도 위원 잘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열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
를 반영해서 정책을 다시 재설계하고 정책 변화
를 이끈 것입니다. 국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해서 방과후 영어수업이나 고교 무상교육이나 고
졸취업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이미 진행해 왔던
것에 더 보완책을 강구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
을 만들고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는 점을 말
씀드리고 싶고요.

장관이 바뀐다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왔
다갔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업
성취도평가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찬열 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3월 말까지 저희가 기초학력평가를 어떤 기준

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까지 포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곽상도 위원 30초만.....

○위원장 이찬열 아니, 잠깐만요. 저도 좀 한 말
씀 간단히.....

장관님께서 장관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지 않
는다고 그러셨는데 유은혜 장관님 오시면서 전임
김상곤 교육부장관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장관이 바
뀌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위원장 이찬열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지요.

예를 들어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계속 있었으
면 대통령 교육정책하고 공약하고 역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
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곽상도 위원 저 30초만 더.....

○위원장 이찬열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큼 했으
면 됐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큰 방향에서의 추진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것들
에 변화는 있었지만 시기를 앞당기거나 좀 더 보
완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였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저하고 한번 계속 하실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닙니다, 위원장
님.

○위원장 이찬열 내용도 많이 바뀌었지.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박용진 위원 예, 많습시다.

○위원장 이찬열 유치원 3법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박용진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해 주실 테니까
저는 다른 문제 할게요.

장관님, 작년 국정감사에서요 제가 서울대 김
진수 교수의 특허 빼돌리기 의혹과 관련해서 지
적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용진 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국감 지
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께서 당시
말씀하셨던 사항과 관련해서 서울대 자체감사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따지려고요.

작년 12월에 서울대 감사결과 보고서 나왔고요. 범무법인 태평양에서 제출한 용역 보고서가 또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지적하고 민원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어서 제가 지적한 사안이 사실이라고 하는 게 다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서울대가 이런 느장대응을 한 것 때문에 나왔으므로 개발된 수천억 원 가치의 기술특허를 서울대에 귀속시키지 못하고 그냥 개인이 홀랑 다 먹게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용역보고서에서는 해당 특허에 대해서 톨젠이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허등록무효심판 등 민사·형사·행정적 조치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안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효가 다 만료돼 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허의 만료일이 지난 2월 7일이었습니다. 이제 특허를 반환받기 위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도 돼요, 서울대는? 나랏돈으로 개발한 기술특허를 개인이 홀랑 가져가는 데 서울대가 공모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설렁설렁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교육부 뭐 했냐고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미 작년 10월 달에 문제 있다고 확인한 것 아닙니까?

특히나 서울대, 대전지방경찰청이 수사하겠다고 관련 자료 요청하는데 1년 넘게 무시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조사 협조 요청에도 자료 주지 않고 무시합니다. 국회가 이것저것 지적하는데도 무시합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교육부가 대응했으면 문제를 좀 쉽고 빠르게 대처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서울대 행태를 보면 법과 규정도 무시하고 교육부도 무시하고 수사 당국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안하무인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라고 서울대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대로부터 자료 제출, 보고 이런 것

받으신 적 있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 사업은 사실 과기부의 사업이고 과기부하고 특허청에서 전수 조사를 작년 12월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용진 위원 자료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용진 위원 받은 것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는 게 그런 거예요. 교육부 국감에서 뻔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 사이에 교육부 뭐 하신 겁니까, 뒤에 계신 분들? 교육부 고위 관료들 중에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서울대가 슬렁슬렁한다……

똑같은 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 있지요? 얼마 전에 인천대학교는 교육부에서 감사해 가지고 총장, 부총장 다 중징계 요구하고 기관 징계하시지 않았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저희……

○박용진 위원 서울대는 봐 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서울대를 봐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위원장 이찬열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성격이 조금 다르게 있고요. 저희는 연구 부정이나 연구비 부정사용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서……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연구비 관련해서 문제됐을 때 교육부랑 같이 했었잖아요. 교육부도 책임 있고 교육부도 할 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물론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교육부는 ‘이것은 과기부 일이다’라고 빠져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닙니다. 연구비가 교육부에서 R&D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과기부가 하고 있고……

○박용진 위원 부총리님,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그런 한계는 있었지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

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

○박용진 위원 서울대 감사하실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도 얼마나 안하무인인 줄 아세요? 말도 못해요, 정말.

○위원장 이찬열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용진 위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 부분과 관련한 서울대 자체감사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차관님도 꼭 챙겨 주세요, 이 문제는.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서울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 보시고요.

○위원장 이찬열 챙기는 것뿐이 아니고 유전자가워 관련해서 이걸 특허를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세정, 교육위 간사 하시던 분이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저는 확실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관님도 각별히 신경을 좀 가져 주십시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학재 위원 한유총 사태와 관련해서 승자는 누군가요? 혹시 무릎을 꿇린 교육부가 승자인가요? 또 아니면 패자는 누군가요? 망신당한 사립유치원이 패자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학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패자 중에 학부모나 어린이도 포함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부 유치원의 비리,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도 이것 5%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 미만의 비리 이것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침소봉대돼 갖고 전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취원 어린이들의 약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립유치원이 전체적으로 다 매도가 되고 또 그 원장님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고…… 저희 지역의 어떤 유치원 원장님은 평생을 유치원 했는데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합

니다.

그렇게 사기가 저하되고 그랬을 때 그 영향이 다 우리 아이들한테 간다 그런 측면에서 그 패자 내지는 피해자가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부모님들 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진짜 신바람 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태까지, 지금도 75%의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는 100% 가까이가 다녔잖아요, 그렇지요? 그랬던 공은 인정해 주지 않고 현재 너무 사립유치원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서 반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폐원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3분의 2의 학부모가 동의를 해야 폐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학부모와 원장에게만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을 어디에 맡길 수 없는 학부모가 폐원에 동의하지 않는데 또 폐원을 원하는 원장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유치원을 열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제대로 돌봐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학부모나 원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못하는, 맡길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그 유치원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원장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에 우리 아이들은 정부에서 제대로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건데 이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작년 말까지 이행률은 얼마인지, 올해의 목표는 얼마인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를 달성하려면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폐원을 해야 되는데 그 개수는 얼마인지, 또 그 폐원하는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먼저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유아교육에 헌신하고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부정비리자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학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매도가 많이 됐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특정한 일부 유치원들의 그런 부정비리가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국민적 분노나 학부모님들의 그런 공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어떤 처분이나 이행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이행했던 유치원들 결과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이거는 유치원 개수가 아니라 취원율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좀 더 빨리 강화하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1년 앞당겨서 40%까지 취원율을 높이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1080개 학급이, 그러니까 병설 등 유치원 학급들이 신증설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러면 40% 취원율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임기 중에 40%까지 취원율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이학재 위원 올해에는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중에서 작년 말까지의 취원율은 몇 %였고 올 연말까지의 이행률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올 연말까지가……

○위원장 이찬열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학재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3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가 28%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수치를 확인해서 21년까지 취원율 40%를 지금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하고 목표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도, 작년까지도 자연적으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자연 폐원하게 되는 유치원들도 있고 소규모의 유치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유치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서 방안을 할 건지……

○이학재 위원 자연 폐원에 맡기면 그거는 고사 작전이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인구가 감소하니까 취원생들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원이 문 닫게 되는 경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연수갑 박찬대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결과 3월 말에 발표하기로 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지금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를 숨기기 위해서 매년 11월에 발표하던 것을 3월에 발표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박찬대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그러면 발표가 왜 늦춰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기초학력평가와 관련해서 학업성취도평가가 해마다 발표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11월 말인가 저희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봤을 때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평가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하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교육부가 그냥 통계 수치를 발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러한 기초학력평가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건지,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고 그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를 같이 발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어서 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지금 일부 언론에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고 그 문제의 중심에 혁신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논조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혁신학교 확대가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혁신학교가 초기에는 기초학력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향상도는 훨씬 혁신학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연결 지어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분석입니다.

○**박찬대 위원** 본 위원도 혁신학교가 기초학력 저하를 일으키고 집값을 떨어뜨리고 전교조 교사들의 이념 교실이 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주장은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이 대개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정, 빈곤가정 아이들이 많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적 책임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부총리께서 솔직하게 비판받을 것까지 감수하고 열린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종합적인 대책도 아까 대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학입시 코디라든가 사교육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없거나 좌절되는 사회로 가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혹시 양극화 심화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사 결과의 단순 수치 발표가 아니라, 특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를 담아서 보고드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장관님, 아까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학교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증거들은 많습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급증한 서울·경기의 2016년도까지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학력미달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아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 증거가 더 면밀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혁신학교가 원래부터 학력이 안 좋은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그런 학교가 학력 신장이 빨리 되더라, 그러니까 올라갈 데가 많으니까 올라가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다 그냥 내려놓고 이런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뭐지요? 전수조사하면 되잖아요. 면밀히 학교 단위로 보면 되잖아요. 학급 단위로 보면 되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표본집단으로 조사하겠다고 3%만 딱 잘라 놓고 이제는 그 내용은 학력 저하가 있었다라는 내용만 말하고 그 결과는 대책과 함께 말하겠다……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결과를 놓고서 숙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지금 표본집단 조사로 바뀌면서 이미 찍어 놓은 시험지랑 채점비 낭비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20억이예요, 그때 당시에 낭비된 예산이요. 지금 공기청정기, 교실하고 비슷한 20평형 렌탈비 최고가 한 4만 7000원 돼요. 몇 대의 공기청정기 돌아갈 예산이 공중으로 흩어졌는지 아십니까? 책임성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고 엄연한 사실을 가리려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수조사로 이런 논란을 없애세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기 설치된 공기정화기가 몇
기 정도 됩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

○전희경 위원 기 설치된 거 17만 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대수를 말씀하시
는 건가요?

○전희경 위원 예, 그러면 17만 대 유지관리비
는 한 해 얼마 정도 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렌탈을 하는 경우
에는 한 달에 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렌
탈비요. 그러니까 그 대여비요.

○전희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 설치
하게 되는 공기정화기는 조달청에서 아마 입찰을
통해서 납품하게 될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렌탈 방식이 가능합니까, 그때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지금까지도
렌탈 방식은 그렇게 학교 차원에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런데 왜 6년 동안 한 번도 필
터 관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가정
에서 설치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너무나 친절하게 나와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
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렌탈 방식이 아닌
방식을 채택한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서요, 그것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그냥 차이로 봐줘야 되나
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니지요. 저희가
3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6년 동안 한
번도 필터 교체나 이런 것도 없었다고 하는 학교
들을 확인을 해서 이 부분들은 점검을 하고 새로
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
습니까, 그 내용의 조사결과가 나와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추경은 아직 언제
어떻게 편성될지가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안 됐
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들은 교육청과 협
의해서 우선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얼마인지까지를 검토하고 파악하

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해 주시지요.

○전희경 위원 무상으로 하실 것도 많은데 그런
예산까지 지금 추가로 투입되면 그러면 그 재원
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잠깐만 답변드려
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열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앞서 혁신학교 말
씀하셨는데요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서로 이견
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혁신학교의 교육과
정과 평가에 대해서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로 다
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만을 가지고
서 그것이 옳다고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혁신학교 현장과 그 과정을 봤을 때 또
그 학교를 졸업했던 학생들을 봤을 때 혁신학교
의 교육과정이 매우 아이들에게 교육적 성과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가는
어떤 취지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도 좀 다양
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찬열 아까 주질의 때 약간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약국이나 이
런 데서 미세먼지 관련한 마스크를 살 때 가격이
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 50만 7000
명에게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6만 4000여
명에게 연간 3개의 마스크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정부나 그리고 교육부가
추진해 나가야 하고, 그런데 또 하나는 우
리가 문화처럼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 또 학부모들도 그렇고, 제가 학부모를
하면서 아이들이…… 비가 오는 날 집에서 기다
리던 엄마들이 우산을 갖고 와서 아이들을 데리
고 가기도 하지만 집에서 일 나간 엄마들은 아이
들을 데리러 못 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나 이런
데서 우산을 좀 매입해 놓고 아이들에게 이 우산

을 가지고 갔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이들도 책임감도 생기고 그리고 또 엄마의 부담도 줄고, 같이하는 문화인 것이지요.

마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 또 교육부 또 학부모, 지자체, 시의회 전부 다 같이 좀 준비해 나가면서 그런 준비하는 문화 이런 것도 좀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준비하기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 당국이 해야 될 자세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함께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같이 대응해주고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저도 국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오늘 교육부장관의 인사말씀에도 있는데 ‘국립대는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거점으로 하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했던 상주캠퍼스와 경북대가 있습니다. 상주캠퍼스가 경북대에 들어가게 되고, 밀양캠퍼스가 있었고 그 밀양캠퍼스가 부산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캠퍼스들은 거의 아주 최악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주캠퍼스 지적하고 밀양캠퍼스 지적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사실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해 나가려고 했는데 한쪽은 국립대에 의해서 더 말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상급식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 같은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이제서야 중학교 무상급식이 되고 있다는데요. 제가 보기에 지역별로 약간의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교육부가 추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먼저 마스크는 시·도교육청별로 제가 가 본 학교들은, 이미 학교에 비치해 해서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도교육청별로 필요한 아이들 수요조사 같은 것 해서 학교별로 지침을 내려서 이 부분은 위원님 취지대로, 특히 또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미리미리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도 부 차원에서 좀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급식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교육감들에게 다 이양이 많이 되고 있어서 무상급식이나 또 여러 가지 자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일한 전국단위의 기준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강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영교 위원 추동 정도로 권고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리고 국립대 관련해서 국감 때 말씀 주신 내용이 있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주의 그런 문제들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와 같이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상주만이 아니라 그 캠퍼스들 다 정리해서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위원장 이찬열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일문일답인데 언제부터인가 일괄 질문·일괄답변으로 돼 버렸어요.

○홍문종 위원 질의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서영교 위원 3분 내에 어떻게……

○위원장 이찬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가요? 교육부 가지고 안 돼요? 국가교육위원회 또 해야 돼요? 저 뒤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솔직히 물어보세요, 국가교육위원회 그것 해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옥상옥이지요. 여기서 하는 것 여기서 떼어다가 저기다 갖다 주고……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에 관해서 언제 교육부가 안 해 온 것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그런데

중장기적인 어떤 정책 과제들을 연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교육부 차원에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는 할 수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 조직으로 구성해서……

○**홍문종 위원**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인원 구성이나 추천이나 여러 가지 활동 방식을……

○**홍문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희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하고요. 그것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교육 위원회에 있냐’고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거기 가서 절대, 교육하는 분들 말씀이 ‘이것 옥상옥이다. 만들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마 정권 바뀌면 또 없어질 것이고 괜히 엄한 것 하지 말고 교육부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겁니다.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덕선 위원장인가요 그분을 고발했나요? 그분이 검찰에 가나요? 그것 선처를 하세요. 그것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마 고발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장관께서 선처를 하세요. 들어 보세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제 다 물러난다고 그러고 또 물러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검찰에 끌려가야 될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교육부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얻을 수가 없어요, 3분 만에 다 해야 되니까.

제가 하노이에 가 보니까요 하노이에 한국학교가 있어요. 아마 장관님께서 거기까지 못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이 3000개가 들어가고 박항서도 있고 그래서 한국 붐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 교육이 막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도도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하도 늘어나니까. 복도에다가 교실을 만들어야 될 만큼 지금 굉장히 학교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하면 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홍문종 위원** 그리고 그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하노이 한국학교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홍콩에 있는 한국학교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 분쟁이 있어 가지고 골치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하노이 같은 데는 저희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문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하고 정책으로 뒷받침을 해주세요. 예산도 전문대학에 정당한 예산을 주시고 또 정책도 행정적인 뒷받침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찬열**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로 다 고루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하노이 같은 데는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니까.

○**홍문종 위원** 예, 2000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 부분은 더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더 검토하도록 하고요.

전문대학,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관심 갖고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 한체대 감사 2월 달에 하셨는데, 끝났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감사는 끝났습니다.

○**신경민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시사프로그램에 나와서 심석희 선수와 비슷한 케이스가 이미 보고가 됐고요. 2014년도 한체대 감사를 교육부가 갔는데 이 감사에서도 특별히 드러난 게 없이 그냥 유아무야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되풀이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고 그때도 공금 문제, 그리고 논문 같이라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논문 쓰면 이것 가지고 하여튼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안용규 총장당선자도 논문 표절을 했더라고요. 이것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사실 교육부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감사 결과가 취합이 되는 대로 바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후속 조치도 같이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사태, 이것 보도가 아주 크게 나와서 얘기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이분들 보니까 18건이나 비리가 접수돼서 교육청이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 대단해요. 학교장하고 행정실장이 부부간인데 정년이 넘으니까 정관 고쳐서 계속 있고, 옥상에다가 건물 설치해서 거기서 밥 먹고, 대단해요. 굉장히 대단한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여기는 안 받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서 아버지가 물려준…… 이 학원이 뭘니까, 청은학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대단한 청은왕국이더라고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이것 어떻게 안 뭘니까? 이것 꼭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사립학교법 얘기는 하셨는데 사립학교법과 상관없이 이런 비리가 있으면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가 이런 사례를 조사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매우 좁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공문을 발송하거나 어떤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사항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

다. 저희도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어떤 즉각적인 조치들이 가능할지를 다시 한번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이 사람들 하는 비리를 보니까요 꼭 사립학교법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당집행 했지요, 교원임용시험 부정채용 해 가지고 교장 딸, 지인 채용했지요. 그리고 학생들 사적인 행사·공연에다가 술자리 동원했지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사립학교법과 상관없이 이분들은 완전히 왕국의 여왕과 왕으로서 군림을 해 온 것이고 ‘법은 법이고 나는 나다’ 이런 것인데, ‘내가 곧 학교다. 내가 곧 법이다’ 이것인데 이것은 사립학교법만 없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 좀 너무합니다. 이것은 해도 너무하고요. 사립학교법만 핑계 대고 그냥 두고 보기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서울시교육청이 인사상의 조치를 23건 요구했는데 그 처분을 이행하는 기간이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여하거나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행정소송으로 가거나 이행을 계속 안 하면서 버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사립학교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절차들에 따라서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경민 위원 하여튼 전국에 있는 소왕국들 이것을 사립학교법이 될 때까지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소왕국들은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조승래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들을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을 정치적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또 지속가능하게 또 안정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협력적으로 풀기 위해서 거버넌스 혁신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설치하기 위한 대통령선거나 각종 선거 때마다 공약이 또 있어 왔고요. 가까운 지난번 대선 때도 모든 후보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했구요.

또 19대 때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관련된 법안들을 제출했고,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또 많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대 때 그 법안들이 논의조차 못 되고 폐기가 돼 버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지 벌써 3년이다 되어 가는 지금에 와서도 사실은 논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순회 설명회라든지 순회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 그리고 대교협·전문대교협 등 대학교육단체 등과 함께 실제로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구요. 그래서 지난 2월 말에 관련된 토론회까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적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옥상옥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논의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정도의 의혹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고, 지난번 토론회 때 저도 발제를 했습니다만 그때 교총을 비롯해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꼭 제가 들어 봤을 때는 그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보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당연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뭔가 교육 거버넌스를 혁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오히려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가 좀 제대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행히 아까 3당 간사가 합의하기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공청회를, '4월 10일 전후해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진행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할 생각이구요.

물론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한 번 더 조율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옥상옥 시비라든지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교육부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국회 논의 과정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지방교육자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부의 역할과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면서 교육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된 논의가 국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엘리트교복 청주점, 아이비클럽 청주점, 스쿨룩스 청주점.

장관님, 제가 세 지점을 소개해 드렸는데 된 내용인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한표 위원 잘 못 들었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죄송합니다.

○김한표 위원 교복업체가 담합을 해 가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 예.

○김한표 위원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 등골을 휘게 한다, 그게 보니 청주에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공정위에서 해당 업체들 교복 구매입찰 담합행위 적발했는데 이미 다 매입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니까 그 피해가 보상이 될 수 없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한표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보면 학교 주관 구매입찰제도가 문제점이 있다, 허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완 대책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금 시·도교육청별로 교복도 무상교복 지원해 주는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마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무상교복이나 무상급식을 점차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복의 문제도 교육청별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더 현황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현황 파악 뭐 좋은 말씀 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교육청에서 안 이루어지면 교육부 차원에서 감독책임을 묻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근절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입찰제도 자체를 좀 바꾸든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계속 피해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는 이런 일들은 근절돼야겠다는 생각 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범외노조인 전교조를 국제회의 대표로 데려가겠다고 교육부가 그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들은 법 잘 지키고 그렇게 준법정신으로 잘 커 가라’ 그렇게 하는데 막상 교육부는 범외노조인 전교조를 국제회의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참 이게 잘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그 부분은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전교조와 교총이 모두 세계 교원노조 회원입니다. 그래서 각기 초청을 받은 겁니다.

○**김한표 위원** 그러면 이 언론 보도가 좀 잘못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한표 위원** 제목 ‘범외노조 전교조를 국제회의 대표로 데려가는 교육부’ 이런 제하의 오늘 기사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 제목이 사실과 다릅니다.

○**김한표 위원** 다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김한표 위원** 아무튼 뭐 장관님께서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또 범외노조 찾았는데 교육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주실래요?

저는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는 교원단체이기는 하지만 일단 대한민국 국법이 범외노조라고 그렇게 정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너무 선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교육적으로 과연 옳은가?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부서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이것 장관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계속 전교조를 합법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면서 지내야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법적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교총이나 전교조나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협력관계나 이런 것들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저는 이견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좀 답답하네요.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났는데 제가 아까 주질의 끝나고 드리고 싶었던 말을 못 드린 말씀이 좀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위원장 이찬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치원 사태도 겪어 보고 이러면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의무교육을 먼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따라서 유치원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제 개편도 예를 들면 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6년에서 5년, 대학교 4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문이 있었습니까?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TV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50년 전 얘기란 말이예요. 물론 교육의 질과 내용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실질적으로 50년 동안, 50년이 지난 이 순간에 봐서도 학제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냥 6·3·3·4.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외부 환경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해서 50년 전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는 하늘땅 차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초등학교를 6년씩 갖고 갈 이유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중학교·고등학교를 6년에서 1년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2년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 학년 교실이 다 남습니다, 물론 경과기간은 필요하겠지마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또 한 학년 교실이 다 남습니다. 그러면 의무교육으로 유치원을 편입시키더라도 시설 면에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대학에 갈 필요성도 옛날만큼 대두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진로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나는 다시 저쪽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싶으면 2년 동안의 여유가 있으니까 2년 동안 잘못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큰 때가 유치원·초등학교, 유아 시기부터 초등학교까지인데 초등학교 1년 빠지고 중·고등학교 1년 빠지고 2년을 빠지면 학부모들이 2년 일찍 해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도 쉽고 또 우리 청년들이 취직하는 데도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보다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1년 빨리 실시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시간강사 처우개선 이것 교육부에서,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 갖고 이것이 지금 얘기대로 강사 전부 퇴출시킨다, 이런 사회환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건데 교복 관련해서 갖고 화성에 청림중학교라고, 지금 제 기억에 화성인지 수원인지 청림중학교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천에 모 중학교가 있고. 거기엔 교복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삼위일체가 돼 갖고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을 만들어서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로 제가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는 광상도 위원님, 이학재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네 분이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까?

간사님들 협의 좀 해 보세요.

김한표 간사님 뭐가 불만족이신 것 같은데 괜

찮습니까?

○**김한표 위원**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신청한 위원님들……

○**조승래 위원** 하시지요.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전희경 위원**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일과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등치되는 건 아니지요, 장관님? 중요하다고 해서 전부 정부가 해야 된다,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의료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의료시설이 다 국립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교육이 다 국립일 필요도 없고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립의 존재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의 80%는 사립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 지탱돼 오고 대한민국 교육경쟁력도 거기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는 유치원 사태 이후에 2021년까지 한 해를 앞당겨서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국공립 비율을 늘리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를 더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치원이라는 업종이요, 직종이 사양산업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는 게, 그러면 다시 여쭙 볼게요.

유치원이라는 데가 학생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있어야 존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1명이 채 안 되니까요.

○**전희경 위원** 1명이 채 안 됩니다. 초저출산 국가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산업이냐 아니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이라는 게요 지금처럼 문 열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자연고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국공립 비

중을 이렇게 늘린다, 그러면 이 국공립 아이들 없으면 문 닫습니까? 여기 뽑는 교원들 신분이 됩니까?

장관님,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은 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공무원입니다.

(이찬열 위원장, 김한표 간사와 사회교대)

○전희경 위원 공무원이지요. 유치원 이대로 가면 합계출산율 1도 안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구조조정과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부가 ‘교육기관인데요’, 이게 될 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을 40%까지 늘리겠다, 당겨서 하겠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유치원을 매입하든 협동조합형을 세우든 단설로 새로 신설을 하든 교육공무원으로서 새롭게 사람을 뽑든 그것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돈을 누가 냅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민의 세금이지요.

○전희경 위원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포화상태여서 지금대로 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국공립 증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사태 났다 해서 늘린다, 한 해 더 앞당기겠다, 이런 대책 내놓는 게 과연 책임성 있는 정부입니까? 그것 만들어 놓고 사람 뽑아 놓으면 그 감당은 이제 아이 안 낳아도, 거기에 해당하는 학령아동이 없어도 모든 국민의 주머니에서 다 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국공립유치원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지금도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립유치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훨씬 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나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국공립유치원이 100% 다 유아교육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40%까지, 저희가 국정과제로 공약하고 목표했었던 것들은 사실 과도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립유치원들이 아이들 숫자가 줄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예측해서 사립유치원들이 퇴

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이 같이 상생하면서 실제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피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지금 말씀과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와는 전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관련해서 지금 열려 있는 곳도 아동을 못 채우는 곳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 장관님도 보셨을 겁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다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표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박찬대 위원 아까 신경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교육부에서 한체대 감사를 비롯해서 학교 운동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08년도에도 여자농구부 성폭력 문제가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체부가 합동으로 대책을 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지도자 학생교육이나 또 지도자의 제명 문제 또 체육지도자 자격 문제 등등 제도적 방안들이 여러 번 나왔지만 큰 효과를 못 봤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만큼은 과거의 그냥 한두 학교의 한두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또 국민권익위까지 나서서 실태파악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근본적으로 대책들을 세워서 구조적인 해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엘리트체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숙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경기 참여 일자도 좀 제한하는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엘리트체육 그 자체보다는

지도자와 선수 그다음에 선후배 간의 폐쇄적인 권력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절시키기 어려운 원인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고민해 줘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로 지도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인권위에서는 강력한 성범죄는 오히려 선후배와 같은 학생선수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이성뿐만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폭력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래집단과 다양한 경험, 유대감이 필요한 그 나이에 사실 엘리트체육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세계를 빠져 나가면 혼자 남게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적극적인 해결책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을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요. 학교 운동부 특유의 폐쇄성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실태조사 플러스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고 또 일반학생들을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단기간에 학교 엘리트체육 시스템을 다 바꾸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꾸려서 전수조사만이 아니라 제도적 제안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찬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하는 척하면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1만 4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국내 취

업목적으로 교육어학연수용 비자를 우회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국가의 학생들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교육제도를 만들어도 지금 수단과 목적이 서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의 허술함을 간파하고 교육용 비자 알선 브로커 조직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함께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저희 법무부하고도 지금 비자 관련해서 심사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침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나 법무부와 실태를 정확하게 공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기술교육학원에도 허위 등록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표 박찬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장관님, 전국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학급 수가 11만 6000여 학급이고 41.9%라고 보고가 됐는데, 현재로는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인데 올해 말로 전체적으로 다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가능한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70% 넘게, 유치원은 거의 98%고, 중·고등학교가 문제인데요.

○이학재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지 그것만 간단하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공기청정기로 한다고 하면 시급성을 생각해서 가능합니다.

○이학재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또는 공기정화장치를 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있지만 장시간 운영했을 경우에는 한 서너 시간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져서 환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운영상

의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예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고 그 안에서만 계속 생활하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대되고 그 폐해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게 더 폐해인지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게 더 폐해인지 모를 정도로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어디 지금 분석해 놓은 무슨 자료 같은 건 없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지금 당장은 없고요.

○**이학재 위원**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현재로서는 답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밖에 있는 공기를 끌어 들여서 그것을 정화하는 수단을 만들든지 더 좋은 것은 창문 열어 놓고 환기시켜 가면서 살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장관님께 답을 내놓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환경부나 산업부나 아니면 청와대나 아니면 국민들께 우리 아이들 창문 열어 놓고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종합적인 또 근본적인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물론입니다.

○**이학재 위원** 또 교육부가 미세먼지 대책 중에서 실내체육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실내체육관 설립은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외에서 체육활동을 하기 어려워서 실내체육관을 우선 만들었는데 실내체육관 내에 공기정화장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학재 위원** 실내체육관 설치하는 것도 문제고 체육관 설치해 놓고 거기에 공기정화장치가 또 안 돼 있으면 그것도 문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인 현황과 단계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이학재 위원** 이것도 학교교실 문제하고 똑같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설치하는 데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실제로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이들이 공기가 더 나쁜 곳에서 운동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면밀히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문제는 저희가 교육부 차원에서만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산업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학교 내의 교실 공기 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과기부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실과 학교수업에서 아이들의 공기 질 문제를 어떻게 향상시키고 그게 과학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표** 이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상도 위원** 아까 물은 것 중에 교육부 정책이 장관이 바뀌면서 자꾸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끝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정부 업무평가에서 교육부가 미흡 평가를 받은 것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김한표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상도 위원** 미흡의 주된 이유로 분석하는 게 학교현장의 혼란이라든가 대입제도 개편에서 곤란한 거라든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관련 입장 번복, 고교 무상교육 로드맵과 관련한 행정 혼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언론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는 전임 교육부장관이 바뀌면서 장관 본인이 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합디만 어떻게 장관이 정책을 바꾼 것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겠느냐?

고교 무상교육 이런 것들은 취임사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 버리니 교육부 관료들하고 깊이 있게 상의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기재부 예산하고 상의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않습니까?

또 영어교육 같은 이런 것 바꾼 것도 일부 언

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실무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갑자기 교육정책을 바꾸는 데 대한 불만들이 나타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관의 자세를 보면 저는 이게 앞으로 더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고교 무상교육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 끝났는데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라든지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역시 지금 다 비공개하고 있고 학업성취도평가 역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고쳐 나가고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가리고 숨기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금년도도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문제도 사실 빨리빨리 털고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내놓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지 전부 가리고 늦추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는 교육부 입장이 덮일 수 있겠습니까만 궁극적으로는 교육부 입장이 덮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진심으로 국민들 앞에 어떻게 어떻게, 어떤 부분은 이렇다고 하고 이런 걸 다 공개하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내야지요. 개선책과 같이 내놓겠다고 얘기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문제를 교육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 마사지해서 내놓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의원석에 앉아서 하셨던 말씀 그것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통계수치가 어떻게 마사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곽상도 위원 결과를 공개한다 안 한다, 대책을 만든다 안 한다 하는 게 마사지라는 겁니다, 숫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대책을 교육부에서 만들어 내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 앞에 제시한다,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런 것들이 마사지라는 겁니다.

이미 시한이 돼서 공개하겠다고 다 발표가 되

고 이런 것들이 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예전에 의석에 계실 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는 이런 통계수치나 어떤 결과들을 일부러 숨기거나 속이려고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무상교육 연구용역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고요 영어 내실화 방안도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육은 이미 국민들의 동의가 80%가 넘는 정책이어서 이 부분은 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한 학기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와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학력평가 결과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속이거나 어떤 거짓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제가 볼 때도 유은혜 장관님은 속이거나 만들지 않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 말씀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또 있으세요?

○곽상도 위원 저만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장관께서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 부처에서 평가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 상당 부분입니다. 이것을 야당 국회의원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정부 부처 안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정부 부처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은 아까 김한표 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관련해서 내 손자, 내 손녀, 내 조카라는 그 하나만 명제를 갖고라

도 충분히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심은 크시겠지만 3당 간사님들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찬열 위원, 임재훈 위원, 조승래 위원, 박용진 위원, 곽상도 위원, 신경민 위원, 홍문중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은혜 장관님과 기관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곽상도	김한표	김해영	김현아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신경민	이찬열	이학재	임재훈
전희경	조승래	홍문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조기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 장관	유은혜
차관	박백범
기획조정실장	주명현
고등교육정책실장	김규태
학교혁신지원실장	김성근
대변인	한상신
사회정책협력관	구연희
감사관	김청현
정책기획관	김천홍
국제협력관	최은희
고등교육정책관	최은욱
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직업교육정책관	김태훈
학교혁신정책관	정인순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
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학생지원국장	전우홍
평생미래교육국장	임창빈
교육안전정보국장	정종철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부단장	김현운
운영지원과장	이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광
편사부장	김우철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은숙
중앙교육연수원장	김영진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성기
국립국제교육원장	송성민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박이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이정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신승도
한국고전번역원장	김병욱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안병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지병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윤정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노성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안상진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반상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성기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나영선

【보고사항】

○위원 개선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학재	자유한국당	2019. 2. 8.